七甲文化祭

社団法人 青陽文化院



七 甲 山

靑陽郡의 靈山인 七甲山은 靑陽郡 大峙面과 定山面, 赤谷面 경계에 있는 산으로서 靑陽郡民의 바른 기상처럼 서있는 山이다. 산 높이 561 m 대덕봉으로부터 큰 陵線을 이루어서 동쪽 定山地方을 山東文化, 서쪽 靑陽地方을 山西文化로 그 문화가 펼쳐진 산으로 靑陽郡民과 더불어 살아오는 山이다.

目　　次

發　　刊　　辭 …… 3

七甲文化祭趣旨文 …… 5

七甲文化祭擧行 行事表 …… 7

第一回 七甲文化祭 行事內譯 …… 9

第二回 七甲文化祭 行事內譯 …… 10

第一編 靑陽의 歷史 …… 11

第一章 우리고장의 地形과 氣候 …… 11

第二章 先史時代와 우리고장 …… 13

第三章 百濟時代의 우리고장 …… 16

第四章 新羅高麗時代의 우리고장 …… 20

第五章 朝鮮時代와 우리고장 …… 27

第二編 靑陽郡 諸神祭 …… 35

第一章 序　　論 …… 35

第二章 諸 神 祭 …… 37

第一節 山 新 祭 …… 37

第二節 長 丞 祭 …… 43

第三節 立 石 祭 …… 47

第四節 洞 和 祭 …… 49

第五節 龍 王 祭 ····· 50
第六節 神 壇 祭 ····· 51

第三編 靑陽의 飮食 ····· 55

第四編 靑陽郡의 民俗놀이 ····· 60

第一章 洞 和 祭 놀 이 ····· 61
第二章 횃 불 놀 이 ····· 61
第三章 流 頭 놀 이 ····· 62

七甲文化祭를 通해본 觀光開發 ····· 63

Ⅰ. 序 論 ····· 63
Ⅱ. 七甲山周邊地域別 觀光開發計劃 ····· 65

發 刊 辭



鄕土文化史를 編刊 해 보려고 오래 전부터 鄕土傳統文化資料調査에 關心을 가지고 事業을 推進하여 오면서 鄕土文化祭의 必要性을 느껴 왔읍니다. 우리나라의 서울에 文化集中은 地方文化의 放置結果를 招來하였고 均衡 있는 國土開發과 다가오는 많은 國際行事를 앞두고 地方文化發展 開發이 절실한 이때 政府의 地方文化院活性化 方案이 검토되고 推進되고 있음에 힘 입어 昨年 第1回 七甲文化祭를 가져 봤읍니다. 準備할 時間的 餘裕와 事業할 財政도 제대로 確保치 못하고 그저 해야겠다는 必要性 앞에 급작 스러이 推進委員會를 構成 名稱과 行事槪要만 設定하고 推進했읍니다. 行事를 치루는 過程 미흡한 점도 너무 많았지만 얻은것도 實로 많았읍니다.

郡民이 一體感을 造成하는데, 郡民이 鄕土史를 알려고 하는데, 郡民이 鄕土傳統文化를 찾으려는데, 내 고장도 觀光地로 開發할 充分한 소재가 있음을 알고 개발의 意志를 모으는데 如實했읍니다.

이 고장 開發에 이 七甲文化祭를 繼續 잘 가지는 것이 重要한 일이라는 것을 느꼈읍니다. 이 七甲文化祭를 앞으로 잘 계승 발전 시키기 爲하여서는 우리의 先祖들이 이룩해 놓은 傳統文化를 더 점 깊이 더 많이 찾아야 하고 先祖의 얼을 찾아 繼承하는 것이 무엇보다 重要한 일이라 생각하고 七甲文化를 發展하는데 努力했읍니다.

參考文獻도 不足했고 調査研究할 時間도 不足했읍니다. 口傳을 그대로 어떠한 部分은 推測을 그대로 썼읍니다. 試論的인 面도 있읍니다.

七甲文化를 찾아 傳承하는 것이 七甲文化祭인 故로 앞으로 七甲文化를 찾는데 꾸준한 調査와 研究에 熱中해서 不足한 點을 補完하여 나갈 생각입니다. 뜻있으신 많은 분들의 指導鞭撻과 協調 있으시기 바라오며 바쁘신 중에 監修를 해 주신 崔文輝 선배님께 감사드립니다.

西紀 1984 年 12 月 31 日

社團法人 靑陽文化院長 韓 相 玉

七甲文化祭　趣旨文

우리 先烈들의 거룩한 偉業과 이에 따른 半萬年의 歷史를 돌이켜 보면서 鄕土文化의 振作이야말로 내고장 文化向上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우리 祖上들이 피와 땀을 흘려 이룩한 七甲文化의 傳統을 길이 保存하고 이나라 近代化作業에 竝行코자 여기 鄕土文化祭 七甲文化祭를 發起합니다.

太百山脈의 脈을 이어 韓半島 中樞部分에서 우리들의 터전인 忠淸南道 西南쪽으로 흐르는 車嶺山脈의 준령인 七甲山은 靑陽郡民의 象徵이며 또한 우리 靑陽郡民에게 歷史的으로 터전을 마련해 준 거룩한 山입니다. 우리들의 祖上이 처음 이고장에 定着할 때 七甲山의 山東으로흐른 脈은 定山文化를, 山西로 흐르는 脈은 靑陽文化를 造成하며 오늘날에 있어서의 靑陽文化의 터전을 굳혔읍니다. 모름지기 靑陽文化가 七甲山文化로 通稱되는 것도 이에 原因이 있읍니다. 海拔 561 *m*인 七甲山은 住民들이 스스로 崇仰하고 스스로 造成하고 스스로 保存한 遺蹟이 많이 있읍니다. 山으로 오르면 그 많은 山祭堂, 城徨堂 祈雨祭壇이 歷史를 기록하고 산아래로 내려오면 住民들의 요람지인 들에 횃불놀이, 流頭놀이, 洞和祭놀이 等 祖上들이 가꾸고 즐기던 民俗놀이가 點景을 이루는가 하면 住民들의 고장인 여기 저기에서는 우렁찬 農夫歌가 들려오기도 합니다. 또한 나라가 위급할 때 義兵을 이끌고 錦山에서 장렬한 죽엄을 選擇한 100餘名의 義兵의 喊聲과 韓日合併과 民族的 비분의 歷史속에서 나라를 위해서는 죽엄을 하고 외치며 모여들었던 七甲山 天庄里의 700餘名의 憤怒에 찬 住民의 喊聲도 靑陽郡民만이 자랑할 수 있는 崇高한 思想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祖上을 위해서 祖上들이 갈고 닦아 온 偉業을 계승할 責任이 있읍니다. 그 責任中의 一環이나마 報答코자 여기 七甲文化祭의 始發을 알리며 그 遺業을 계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祝祭보다는 祖上의 넋을 가꾸는 鄕土文化祭로 발돋움하는 七甲文化祭에 郡民은 모

두가 參與하고 빛내주는데 努力하여야겠읍니다.

1985. . .

七甲山文化祭擧行行事表〈草案〉

1. 祭　典

序　祭

1. 山 神 祭

2. 長 丞 祭

3. 立 石 祭

2. 民 俗 行 事

1. 洞和祭놀이

2. 횃불놀이

3. 流頭놀이

4. 民謠大會

5. 農　樂

6. 弓　道

7. 씨름大會

3. 藝 術 行 事

1. 漢詩白日場

2. 時調競唱大會

3. 國樂競演大會

4. 音樂發表會

5. 演劇競演大會

6. 舞踊發表會

7. 美術展示會

4. 佛 敎 文 化

1. 燃燈놀이
2. 塔돌이
3. 僧　舞
4. 鄕土飮食競進大會
5. 登山大會
6. 茶道講習會

5. 가 장 행 열

1. 狗盧國人行列
2. 山神靈行列
3. 百濟復興軍行列
4. 長丞行列
5. 勝利의　行列

6. 祝　　祭

1. 초롱行列
2. 불꽃놀이

第一回 七甲文化祭 行事內譯(84. 9.28-30)

序 幕 式

1. 開 會 辭
2. 國 民 儀 禮
3. ㄱ) 국기에 대한 경례
   ㄴ) 애국가 제창
   ㄷ)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ㄹ) 문예중흥 선언문 낭독

山神祭式順

焚 香
獻 酌
由致朗讀
祭 文
燒 紙
閉 式

전 야 제 : 시조경창대회, 군민노래자랑

1. 산 신 제
2. 洞和祭놀이
3. 등산대회
4. 한글백일장
5. 연등놀이
6. 塔돌이
7. 민속씨름대회
8. 농악놀이
9. 궁도대회
10. 토속음식 연찬회
11. 다도강습회

第二回　七甲文化祭　行事內譯(85. 9.29-10. 1)

序 幕 式

1. 開　　會

2. 國民儀禮

3. 文藝中興宣言文朗讀

山神祭式順

焚　　香

獻　　酌

由致朗讀

祭　　文

燒　　紙

閉　　式

전 야 제 : 군민노래자랑

1. 산 신 제

2. 등산대회

3. 동화제놀이

4. 한글백일장

5. 塔돌이, 연등놀이

6. 민속씨름대회

7. 궁도대회

8. 농악놀이

9. 가장행열

1) 산신제

2) 장승제

10. 여성경기

1) 그 네

2) 구기자아가씨　선발대회

第一編　靑陽의　歷史

第一章　우리고장의 地形과 氣候

靑陽郡은 우리나라 중부지방 서남쪽에 위치해서 동쪽으로는 錦江을 사이에 두고 公州郡 灘川面과 접하고 있으며 그 위쪽으로는 公州郡 牛城面과 新豊面과도 군계를 나눈다. 또한 서쪽으로는 烏棲山과 無限川을 경계로 保寧郡, 洪城郡과 접하며, 남쪽으로는 芝川과 錦江을 경계로 扶餘郡과 접하며, 북쪽으로는 禮山郡과 접한 부채모양의 형태를 갖춘 군이다. 靑陽郡의 經度와 緯度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東 …… 東經 127度1.24分(목면 신흥리)
西 …… 東經 126度42.24分(화성면 화암리)
南 …… 北緯 36度18.16分(청남면 인량리)
北 …… 北緯 36度33.3分(운곡면 광암리)

또한 靑陽郡의 면적은 481.28平方粒이고 주위는 75.36粒으로 忠淸南道에서 燕岐郡 洪城郡에 이어 세번째로 작은 郡이다.

地形은 우리나라의 산악지대를 이루는 太白山脈에서 갈라져서 서남쪽으로 흐르는 車嶺山脈이 靑陽郡의 中央을 가로지르면서 산 높이 561m의 七甲山을 복판에 우뚝 솟게하고 북쪽으로는 獅子山, 茂盛山, 道高山, 廣德山, 聖居山을 이루게 하고 또한 남쪽으로 萬壽山과 아미산으로 이은다. 靑陽郡은 七甲山을 그 준봉으로 하는데 七甲山을 중심으로 한 靑陽쪽을 山西라 하고 定山쪽을 山東이라 부르며 문화적 구분도 그리 나눈다. 定山방면으로는 鷄鳳山, 大朴谷山, 光生山 등이 솟아있어서 그 아래로 美堂盆地 鐵馬場盆地가 있으며 芝川이 흘러서 錦江으로 들어가는 주변에 靑陽郡 최대의 들인 長壽坪이 펼쳐져 있다. 山西쪽으로는 여러 山이 脈을 이루는 가운데 古里島坪이라고 부르는 靑陽盆地가 있으며 또한 雲谷盆地가 펼쳐진다. 그리고 서편에 자리한 烏棲山에서 발원하여 흐르는 無限川을 주변으로 長谷坪이 그리고 烏棲山周邊에 化

城坪이 있으며 大峙面은 柿田坪 定山의 定山坪 등이 중요한 들이다. 河川으로는 七甲山 북쪽 甲坡洞에서 발원하여 흐르다가 大峙洞 五龍洞에서 발원하여 흐르는 溪流와 합류하여 於乙項川이 되어 남쪽으로 흐르다가 西川과 함쳐서는 古里島坪을 형성하고 다시 남쪽으로 흘러서 白月山 九峰山에서 발원하여 흐르는 金川과 합류한 다음 溫直里, 九峙里, 鵲川里를 흐르면서 芝川九曲을 形成하는데 여기를 鵲川이라고 부른다. 냇물은 다시 흘러 赤谷面에 이르러서는 金剛川이 되고 長壽坪같은 넓은 들을 조성하고는 錦江으로 들어가는 芝川을 上流로부터 於乙項川 鵲川 泗水難 金剛山으로도 부르는 냇물이다. 그리고 서쪽에 위치한 烏樓山과 白月山에서 발원하여 여러 냇물과 합치면서 북쪽으로 흘러 飛鳳面과 洪城郡 長谷面으로 흘러가는 냇물을 驪陽川이라 부르는데 無限川의 上流를 그리 말한다. 이 냇물은 禮山郡에 들어서면서는 奈川이라 부르며 또한 그 下流에 이르러서는 宗結川이라고 부른다. 無限川이라고는 禮山郡 서편에 이르러서 그리 부른다. 그외로는 大朴谷山에서 발원하여 定山盆地를 形成하고 錦江에 들어가는 箕島川이 있으며 美堂盆地를 造成하고 錦江에 들어가는 沙川 등이 있고 錦江이 있다. 錦江은 全羅北道 長水에서 발원하여 忠淸北道와 忠淸南道를 지나서 西海로 들어가는 강을 말한다. 文獻에 따르면

「錦江 在北一里 見淸州等二十一邑 自燕岐經州境入定山」

…… 文獻備考, 公州牧條 ……

「錦南, 輿地勝覽作壬之津, 在南二十六里 見公州等二十一邑 自公州經縣境入扶餘」

…… 文獻備考, 定山縣條 ……

라는 記錄으로 보아 오래전부터 靑陽에 속한 지역을 흘렀음을 알 수가 있는데 定山邑誌 津度條에

「半灘津 在木面 錦江下流 東距三十里 船稅入公州郡 灘川面 滄江津 在 縣靑面 南距二十一里 船稅入灘川面 江津 在揚面 南距二十五里 船稅木面收入」

이란 기록으로 따르면 靑陽郡의 남쪽과 동쪽에서의 錦江의 비중은 七甲山文化 발전을 위해 큰 貢獻을 하였음을 짐작할 수가 있다.

靑陽郡은 盆地와 들이 있으나 비교적 높은 地帶에 자리한 郡이다. 또한 靑陽郡의 氣候는 3月下旬부터 9月上旬까지 약 80일간은 준기건조기로 비(雨)가 적게 오며 맑은 날씨가 계속된다. 또한 9, 10월은 구름 한점없는 맑은 날씨가 계속되는데 이와같은 현상은 충청남도에서도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特徵이라 하겠다. 일년중 8월달이 가장 氣溫이 높고 1월달이 가장 낮은데 12월달부터 3월중순까지가 가장 흐린 날씨가 계속되는 기간이다. 靑陽郡은 七甲山을 중심으로한 여러 산봉으로 둘러 싸인 山間盆地로써 雨量은 년(年)에 1,300미리미타로 내려서 해안지방의 강우량 년 1,100미리미타와 내륙지방의 년 1,100미리미타에 비하면 강우량이 많은 편이다. 靑陽郡의 四季節은 여름과 겨울이 긴 편이여서 여름철은 立夏 곧 五月初부터 立秋 즉 8月初旬까지를 지적하나 입추가 지된 후에도 9月中旬까지 氣溫이 높은 편에 속한다. 겨울철의 눈은 보통 11월중순부터 내리기 시작하며 3월하순까지 내리는 산간지대인 것이다. 그리고 七甲山을 중심으로 山東쪽에 속하는 定山방면은 錦江流域과 내지산간의 기후 影響아래에 있어서 내륙적 氣候이나 산서지방 즉 靑陽쪽은 서해안지대의 氣候 影響아래에 놓이나 烏棲山이 가로막아 해풍을 차단해 줌으로써 역시 내륙적 기후에 가깝다.

第二章 先史時代와 우리고장

忠淸南道에 인류가 정착하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20000년전이라고 한다. 이와같은 고증은 公州郡 長岐面 石壯里에서 발견된 先史時代의 遺蹟이 考古學的 견해에 따른 確證인데 이곳에서 발견된 주거지의 爐址에서 나온 木炭은 20000년전이라는 탄소 연대가 나옴으로

써 사람이 살았다는 확증을 잡게 된 것이다. 이와같은 현상은 前期 구석기시대로부터 後期 구석기시대로 추산이 되는데 後期 구석기시대 초기인 쇠뗄뻬론에서 그라벳트기에 해당하는 연대임으로 30000 년전에서 약 12000년전까지 있었던 永期의 마지막 永進現像에 의해 氣溫이 내려갔던 時期에 인류가 따뜻한 남쪽으로 삶의 터를 옮겨 옴에 따른 현상이라 하겠으나 忠淸南道에 이때부터 인류가 계속해서 살았다는 데에는 많은 의문점이 있다.

우리나라에 인류가 정착하여 그 分布가 확장되며 部落이 형성되기는 新石器時代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한다. 대체로 인류가 우리나라에 터전을 마련하기는 中石器時代에 滿州, 蒙古, 中國의 華北地方에 걸쳐 細石刀를 주도구로 하는 수렵어로인들이 남쪽으로 흘러 내려오면서 삶의 터전을 잡았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다. 즉 압록강을 건너서 북쪽에서부터 터전을 잡기 시작한 인류가 집단사회를 구축하면서 산간 벽지나 해변에서 주로 수렵 어로로 생계를 꾸몄으리라 하는데 인류가 남쪽으로 이동하면서부터는 두 가지의 흐름으로 서서히 한반도에 정착하여 갔으리라 보고있다. 하나는 북쪽에서 部落社會를 구성하여 한반도의 비교적 平地로 조성된 黃海, 京畿平野와 忠淸道의 平地를 통해서 남쪽으로 흘러갔다는 이동과 압록강을 건너서 주로 해안지방을 지나며 남쪽으로 흘러가며 정착하기 시작하였다는 구성이다. 물론 한반도에 인류가 정착하면서 한반도의 중부지방까지 부락이 형성되어 갈때는 수렵 어로기로부터 농경기로 접는 시기라고 본다면 三韓時代부터 忠南엔 인류가 제대로 정착하며 部落社會國家를 形成하여 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忠淸南道에 있어서 部落社會構成을 중점에 두고 인류의 정착과정을 살펴보면 忠淸南道에 있어서도 두 가지 흐름으로 정착되어 갔음을 입증할 수가 있다. 하나는 三韓時代 馬韓의 月支國을 북쪽으로 하고 不雲國 臣雲國을 조성한 다음 慶尙道로 지나가는 흐름과 瑞山郡 大山半島에서 어로(漁撈)로 터전을 잡은 人類가 感奚國 泗盧國을 주류로 이윤에 部落社會國家를 形成하면서 全羅道로 흘러가는 흐름으로 大別할 수가 있다.

그래서 靑陽文化의 根源도 新石器時代의 狀況은 七甲山을 중심으로 山東地方의 人類의 정착은 內陸쪽으로 흐르는 不雲國의 구성에서 다시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인류가 정착하는 과정으로 보며 山西地方은 大山半島를 기점으로 해안지방을 지나면서 차츰 內陸쪽으로 터전을 옮겨가는 感奚國에 이어 泗盧國의 주변에서 남쪽으로 흐르면서 터전을 잡은 정착으로 보는 것이다. 이와같은 현상의 입증은 靑陽郡 木面 池谷里 干杜門洞의 支石墓와 大平里 錦江邊의 石棺墓에 이어 鷄鳳山의 新石器時代文化의 山東쪽 현상과 山西地方의 靑陽邑 邑內里, 碧泉里에 걸친 들 古里島坪의 文化와 雲谷面 厚德里의 支石墓 등이 新石器時代 七甲山 서쪽의 인류의 정착현상을 立證하는 것이다. 古里島坪에 狗盧國이란 馬韓때의 部落社會國家가 있었다는 說도 있으나 確證할만한 考證資料가 없으며 古里島坪에 가까운 곳에 泗盧國이 있었다는 考證으로는 洪城郡 長谷面 山城里 鶴城山에 城地가 있는데 여기가 泗盧國이 있었다는 것은 確實하며 古里島坪이 泗盧國에서 다시 人類가 이동하면서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은 發掘되는 遺物과 口傳으로 전해오는 傳言에 의해 確實시된다.

舊石器時代부터 人類가 散發的으로 남쪽으로 이동해 오면서 수렵과 어로에 의존해 오는 生活이 農耕社會의 태동으로 山岳과 河川 海邊에서 서서히 平地로 옮겨가기 시작하였을 때는 三韓時代였었다. 그러므로 山岳과 河川 海邊에서 자리잡은 방법에서 脫皮하여 갔으므로 七甲山 山麓에는 人類가 늦게 定着을 해갔으며 오히려 平地를 擇해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人類는 木面의 경우 池谷里 大平里를 擇했으며, 서쪽에서는 古里島坪 厚谷里를 擇해 갔었다. 그리고 다시 百濟때에 이르러서는 山城을 擇하는 경우가 많아 지는데 이것은 차츰 복잡해 지는 人類와 人類의 복잡한 權力鬪爭에서 빚어낸 현상일 뿐 民衆的 歷史的 현상은 아니었다.

住民들이 生活基盤을 平地에 택함으로서 信仰이 싹트기 시작한 것도 馬韓때부터였다. 住民들은 人間이 解決할 수 없는 모든 현상을 하늘과

太陽과 달과 그리고 육중한 山에 기원하는 방식이 태동되었다. 雨期를 맞이해서 비가 오지 않으면 天神께 빌었으며 착찹한 인간에의 憧憬과 소원을 月神에 빌었다. 그리고 山神에겐 질환의 방지와 外侵에의 防止策을 빌었다. 그들은 정성을 바치기 위해서 合掌보다는 먼저 몸을 깨끗히 하여 祭神을 불렀다. 그리고 더욱 神聖視하기 위해 祭壇을 만들었으며 祭式을 創案해 냈었다. 차츰 時代의 흐름에 따라 祭典때는 춤도 必要로 하였으며 樂器도 必要로 하였다. 그리고 律動이 따랐으며 정숙이 따랐다. 여기에서 그 고장 나름대로의 民俗藝術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七甲山에 祭壇이 많은 것은 天神, 月神, 山神의 必要性을 느낀 庶民들이 神聖地를 택해서 祭典을 올리는 것을 습관화하였을 때 神聖地로 찾은 山이 七甲山이었으므로 祭壇이 많은 것이다. 大峙面의 長杖은 事實 옛날에 祭壇이 있었던 곳이며 定山 天庄里와 山祭堂은 馬韓때부터 祭堂이 있었던 天神堂의 터다.

第三章　百濟時代의 우리고장

百濟는 卒本扶餘로부터 남쪽으로 꿈을 안고 나려온 沸流와 溫祚 그리고 그들의 母親인 召西奴에 의해서 建國된 나라다. 처음엔 南下하여 帶方故地(黃海道)였다. 隨書에

「初立國于帶方高地」

라 함은 黃海道 재령강 하구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가까운 인접 國家인 樂浪으로부터 위협을 받으므로 다시 南下하여 미추홀에 상륙해서는 沸流는 미추홀에 나라를 세우고 溫祚는 지금의 天原郡 慰禮城으로 들어가 나라를 세운다. 그러므로 百濟의 建國은 엄연히 처음엔 둘이었다. 그들이 나라를 세울 때는 馬韓이 쇠퇴기에 접어 있었다. 그래서 沸流와 溫祚는 馬韓의 여러 나라를 잠식하기 시작하였으며 沸流는 南下하여 公州에 都邑을 定한다. 이것이 沸流百濟가 百濟

國으로서 처음 자리한 首都다. 그들이 馬韓을 잠식하며 勢力이 擴大되어감에 따라 兄弟間에 權力鬪爭을 하게 되며, 그 사이 年輪이 흘러서 合作을 노리던 그들의 어머니 召西奴는 沸流쪽에 있다가 慰禮城을 찾아가 溫祚의 勢力에 매맞아 죽고 그것이 화근이 되어 溫祚는 沸流를 두려워한 나머지 漢水文南(慶州)에 자리를 정하고 慰禮城이라 하여 都邑을 정한다. 周書 隨書를 보면 沸流(中國에서는 仇台라고 부름)의 墓가 態津에 있다는 기록으로 보아 沸流는 公州에서 죽고 그 勢力은 뒤에 밀리며 남쪽으로 흘러가고 그 틈을 타서 溫祚가 南下하여 勢力을 굳힘으로 이때부터 百濟는 하나가 된다. 記錄에 따르면 溫祚가 慶州에 都邑을 하였을 때 靑陽은 古良夫里縣으로 記錄에 오른다. 그러고 보면 沸流가 公州에 都邑을 하였을 때 靑陽地方은 馬韓의 領域이였는지 沸流百濟의 領域이였는지 그 事實은 기록이 없어서 確認할수가 없다.

溫祚百濟때부터 百濟에 속했던 靑陽郡 一圓은 當時 三個縣이 관할하는 地域이었다. 그 內容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

① 古良夫里縣(靑陽邑 古里島坪) 뒤에 牛城山下로 옮김)
靑陽邑 雲谷面,大峙面,斜陽面, 飛鳳面 一部

② 悅 己 縣(鷄鳳山 豆陵尹城, 뒤에 定山城地쪽으로 옮김)
定山面, 木面, 赤谷面, 靑南面

③ 沙戶良縣(洪城郡 長谷面 山城里 山城)
化城面 飛鳳面 西部一部

옛 나라의 構圖가 모두 그러하듯이 國家를 다스리는 行政制度와 權力構造는 모두 中央集權的이였으며 성곽을 쌓는데 中央을 중심으로한 築城이었다. 百濟때에는 五方制를 採擇하여 모든 行政을 그리집중하여 王權擁護에 힘썼으나 좀 다른 점이 있다면 新羅와 高句麗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쪽으로는 東部司令을 慶尙道 金川附近의 捕城에 두고 新羅로부터의 위협을 막았으며 북쪽으로는 忠淸 燕岐郡 북쪽에 鵲城山城을 구축하고 北部司令을 두어 성곽을 위협받는 쪽으로 集中的으로 구축하여 外勢의 侵入에 대비하였다는 것이 特色이라면 特色이겠다. 靑

陽郡에는 當時 古良夫里縣(靑陽)의 鎭山인 牛山(騎龍山이라고도 부름)에 크고 작은 두 봉우리와 山谷의 자연지형을 이용한 石築山城을 쌓았으며 壕를 九重으로 파서 적의 侵入을 막도록 한 山城을 쌓았으며 定山面 鷄鳳山頂에 있는 鷄鳳山城도 牛城山城과 같은 石築山城이었다. 그리고 木面 池谷里에 있는 土城은 산을 깎아 내려 木柵을 두른城이며 靑陽面 正座里 북쪽에서 서쪽으로 뻗은 山頂과 平地를 거쳐 斜陽面 鳳巖里 산정에 이르는 성곽도 모두가 外侵을 막기위한 築城이나 扶餘의 泗批城을 守護하기 위한 山城이었다. 靑陽縣과 定山縣, 沙戶良縣은 모두 態津方領에 속했었다.

百濟의 全盛期엔 唐나라와의 交易關係로 蘇浦(保寧郡 藍浦)를 거쳐서 扶餘로 가는 길목에 靑陽이 자리해 있었으므로 當時에서는 百濟에서 큰 고을로 속한 곳이 靑陽이었다. 그래서 牛城山 기슭엔 驛丁에 對應하는 百濟 때의 역이었으며 또한 많은 亭子가 자리해서 오고 가는 손들로 붐볐던 곳이다. 百濟文化가 佛教文化의 導入으로 많은 百姓들이 깨우쳐 가므로 곳곳마다 寺刹이 創建되기도 했었다. 扶餘에서 恩山에 이어 赤谷으로 번지는 寺刹의 建立이 百濟가 滅亡하지 않았더라면 定山까지 줄을 이었을 것이라는 후담도 있다. 더욱이 鷄鳳山의 山城인 豆尹山城엔 큰 고을로 변해가면서 지금의 定山 古基(옛터)로 자리가 옮겨지고 해서 넓은 들에 많은 사람들이 移居해 오면서 큰 市場이 百濟때부터 섰으며 斜陽面 金井里의 우물은 藥水로 통하면서 물장수들이 물을 길어서 내다 팔곤 하였었다. 金井里의 물은 泗批城 궁중에서 王이 마시는 물로 지적되어 아침에 물지게를 지고 고개를 넘어서 扶餘 泗批城에 물을 운반하고 돌아서서 오다보면 큰 고개에 이르는데 항시 노을이 질때가 되면 이 고개에 도착한다 하여 그 고개를 斜陽峙라고 불렀으며 유일하게 서민들이 부르는 물장수打鈴이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는 民謠의 고개가 되어 버렸다. 百濟때의 唯一한 古寺였던 金剛寺 건너편에 자리한 赤谷面 冠峴里엔 百濟때부터 瓦當을 구운 큰 도요지가 있었다. 한다.

新羅 高句麗와의 살벌한 鬪爭에서 守勢에 몰린 百濟는 그 화려한 文化의 發達도 아랑곳 없이 武王 以後에 쇠퇴하여 가기 시작하여 義慈王 대에 이르러 風雲의 소용돌이 속에 묻히게 된다. 義慈王의 失政과 新羅의 끊질긴 唐나라와의 外交와 이에 失敗한 百濟는 蘇定方이 이끄는 唐軍과 新羅軍의 聯合軍에 산산조각이 났으며 百濟는 滅亡하고 義慈王은 唐나라에 끌려가는 悲運속에 문을 닫게 되었다. 百濟는 滅亡한 것이다. 그러나 羅唐聯合軍에게 泗批城을 무너지고 王은 降伏을 하였으나 軍과 百姓들은 百濟復興의 기취를 들고 여러 곳에서 봉기했었다. 大興의 任存城에서는 흑지상지가 將軍 遲受信과 함께 雄據하였으며 周留城에서는 左平 福信이 道僧 道琛과 豊王子를 옹립하며 復興의 대열에 섰으며 大田의 雨述城 鎭嶺城에서는 恩率 周勤이 석권을 해서 新羅와 扶餘間의 通路를 막아 錦山으로 돌아가게 하였으며 靑陽 定山에서는 豆尹山城에 左平 正武가 자리해서 羅唐軍과 싸웠었다. 豆尹山城의 正武左平은 百濟復興軍에서 가장 强力한 군사를 거느렸었다. 三國史記 卷6 新羅本紀 文武王 3年條에

「王領金庾信等二十八(一專三十) 將軍與文合, 攻豆陵(一作良, 尹城 專專」

의 記錄에도 있듯이 文武王은 金庾信等 二十八將軍을 거느리고 唐軍과 聯合하여 攻略해 오므로 正武左平이 이끄는 百濟復興軍은 城에서 나와 定山들판을 피바다로 물들이는 싸움끝에 모두 戰死하고 이어 百濟復興軍은 豆尹山城에 이어 서서히 사라지며 忠淸南道內에도 新羅가 다스리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

定山縣의 文化는 百濟文化에 기반을 둔 豆戶原嶽文化라고 말한다. 豆戶原嶽文化는 豆尹山城의 文化란 뜻으로 百濟滅亡後에도 百濟遺民이 定着하여 新羅의 壓攻에도 굽히지 않는 大衆文化를 오래도록 간직하였으며 大衆文化로서의 土臺를 이때부터 굳혔었다. 靑陽 定山地方에서 住民 自發的인 行事로 등장한 洞和祭와 靑南面地方에서 傳統的으로 이여오는 燈火놀이 石戰等 民俗놀이도 百濟以後 그들 스스로가 百濟遺民임을 자랑하며 盛行시킨 古有한 風俗이다.

第四章　新羅高麗時代의　우리고장

百濟를 征服한 羅唐聯合軍은 唐나라의 뜻에 따라 新羅 文武王은 百濟의 隆과 함께 盟會가 있었다. 그 후 相互 친목을 다진 이후 百濟의 故土는 熊津都督府와 일곱개의 속주가 설치되었다. 三國史記 卷37 地理條에 의하면 熊津都督府에

東　明〈지금의 忠南 錦江 북쪽〉
支　潯〈지금의 忠南 大興〉
魯山州〈지금의 全北 全州〉
古四川〈지금의 全北 古阜〉
沙泮州〈지금의 全南 靈興〉
帶方州〈지금의 全南 羅州〉
分嵯州〈지금의 全南 榮安〉

등 이었다. 그리고 靑陽은 熊津都督府 13縣 가운데 속하게 되는데 三國史記 卷37 地理條를 보면,

「都督府 一. 十三縣 嵎夷縣 尹城縣本悅己. 麟德縣本古夫良里. 散昆縣本新村 安遠縣本仇尸波知 賓汶縣本比勿 歸化 縣本麻斯良 邁羅縣 甘蓋縣本古莫夫里 奈西縣本奈西兮 得安縣本德近支 龍山縣本古麻山」神丘縣

등인데 尹城縣은 悅己縣으로 뒤에 定山縣이며 麟德縣은 百濟의 古良夫里로서 靑陽縣이다. 그후 新羅의 神文王이 7年에 행정구역 개혁을 하는데 이때엔 熊川州에 古良夫里縣(靑陽縣) 悅己縣(定山縣) 沙羅縣(驪陽)이 속했으며 景德王 16年에는 다시 州·郡·縣을 漢文式으로 改稱하는데 그때의 九州의 熊川에 忠淸南道가 해당되며 熊川州의 29대 領縣中 悅城縣(定山)은 扶餘郡에 속하고 靑正縣(靑武 ― 靑陽縣)은 大興郡에 新良縣(長谷面―驪陽)은 潔城郡에 속했다.

지금의 靑陽 즉 七甲山 서쪽은 靑正縣 또는 靑武縣이라고 하여 靑陽

雲谷 大峙 斜陽 飛鳳一部를 다스리는 縣이였으며 悅城縣은 七甲山의 동쪽 즉 山東地方의 定山, 木面 靑南 赤谷을 다스렸으며 新良縣은 烏棲山 下麓인 洪城郡 長谷面과 飛鳳面一部 化城面一部를 다스리는 縣이었다. 靑陽은 靑正 靑武縣으로 부르는 고을일뿐만이 아니라 新羅 神文王 七年 이후엔 十停의 하나로서 군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 했었다. 十停은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정복하였을때 그 고장에서 反亂을 일으키는것을 방지하는 정책으로 대개의 경우 遺將 遺民들로 하여금 군사면에서 가담케하여 地方의 有力者가 일으킬 反亂을 사전에 방지하는정책이다. 地方에서도 十停을 설치하여 熊州에 속하는 十停이 靑陽에 설치되어 한때 군사들이 들끓었었다. 百濟의 滅亡後 百濟遺民이 定着한 定山縣一帶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烽起가 있었다. 豆尹山城에 雄據하여 百濟를 되찾자는 義擧도 있었으며 靑南 赤谷一帶에서는 扶餘郡恩山面 境界의 山中에 雄據한 百濟遺民들로 구성된 反抗軍이 때때로 占領하여 泗 城을 위협하는 事態가 자주 일어났었다. 한다. 그러므로 靑陽에 駐屯한 十停의 軍士들이 定山에 陣을 치고 泗沘城을 지키는 新羅軍과 항상 旺津나루를 오가며 감시를 하였다 하는데 이는 七甲山 山東쪽의 百濟民으로서의 긍지를 살리는 行動으로 높이 살만 하다.

百濟文化를 찬란하게 꽃피는 佛教文化는 新羅에 이르러서도 七甲山附近엔 찬란하였었다. 赤谷面 冠峴里 냇물을 건너서 金剛寺가 建立됨에 따라 七甲山附近으로 번지는 寺刹의 建立이 많아졌다. 지금은 오랜 세월에 그 맥을 유지하지 못하고 절터라는 지명으로 남아 있다. 赤谷面에서 靑南面에 내륙쪽으로 번지는 사찰의 建立은 木面 大峙 定山을 거쳐 靑陽으로 들어 선다.

大峙面 長谷里에 자리한 長谷寺도 맥없이 이 장소에 자리한 寺刹이 아니다. 佛教文化는 百濟에 수입? 되면서 王興寺와 같은 護國에 따른 寺刹로 처음은 그리 하였으나 차츰 大衆속으로 그 信仰이 必要視되면서 大衆의 정신적 안식처로 등장하기 시작한것도 百濟末葉부터다. 大衆이 必要로 하는 寺刹이 고을마다 번지기 시작한것도 사실은 僧侶가 寺

刹을 必要로 한것이 아니라 百姓이 信仰으로서의 佛教가 必要하였으므로 그 많은 寺刹이 등장한 것이다.

長谷寺는 지금 남아있는 寺刹로는 靑陽郡에서 가장 오래된 寺刹이다. 절이 이곳에 세워지기는 百濟 第29代 法王 元年(599)으로 상당히 오랜 역사를 지녔다. 百濟때 창건(創建)을 보고 新羅 第47代 憲安王 때 普照禪師가 다섯번째 重修하였다 한다. 오랜 세월을 접으면서 처음엔 작은 寺刹이었으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 重修를 자주 하였다는 것은 寺刹의 規模를 넓혀 갔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가 있다. 現在 전하는 重修記에는 朝鮮時代 正祖元年(1777)에 僧 學緣이 중수하고 高宗3年(1886)에 僧 法行 處仁이 다시 重修하고 高宗43年(1906)에 전오(佺仵)가 각각 重修하고 1960年에 政府의 보조로 크게 重修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長谷寺에는 文化財로 지정된 寶物이 많이 있다.

國寶 58號로 指定된 鐵造藥師如來佛座像附石造座臺는 下臺石과 中臺石과 上臺石으로 區分되었다. 下臺石은 地代石위에 四角二層級이 彫出되었는데 上段 四面에는 各各 眼象이 横으로 길게 彫刻되어 있고 그 위로 素辨伏蓮紋이 流麗하게 彫刻되었으며 四隅에는 귀꽂(耳花)이 突出하였으며 그 위로는 다시 層層이 돌아드는 四段層節이 造成되었다. 이 下臺石위에 長大하고 四角으로 된 中臺石이 놓였으니 이 中臺石의 四面에도 眼象이 彫刻되었는바 鮮麗한 長楕形眼象을 前后面에는 2個씩 兩側面에는 1個씩 配置하였다.

上臺石은 이 中臺石위에 놓였는데 仰蓮四角板石으로 構成되었다. 이 座臺는 須彌座式蓮花座臺인바 統一新羅時代의 優作이며 當時 八角形蓮花座臺가 많았는데 對하여 이는 特殊한 造營이라 하겠다.

그런데 日本 도적이 이를 가져가려고 절밑에 洞里까지 운반한 것을 뺏아 上大雄殿內에 安置해 놓았다. 그로 인하여 耳花 하나가 망가져 없어지고 下臺石이 반으로 쪼개져 있어 원상의 아름다움에 이 내역을 알고 보면 몹시 불쾌하기만 하다.

長谷寺에는 여러가지 전해오는 말은 있지만 하나의 寺刹內에 主殿인 大雄殿이 2個 있는 것도 特徵이다. 일컬어 上大雄殿(寶物 第162號), 下大雄殿(寶物 第181號)이라 하고 있다.

上大雄殿은 前面三間, 側面二間으로 된 段層瓦葺 맞배집이다. 二重圈柱座가 있는 礎石위에 "엔타시스"가 强한 圓柱가 세워지고 위로平枋과 昌枋을 돌렸으며 그 아래로 引枋이 結構되어 中間은 三枚 窓門으로 되고 左右兩間은 兩開雙窓門으로 되었는 바 井字坐門과 소슬빗살門이 混用되었다. 柱頭는 받침이 더 달리고 이 柱頭와 中間平枋上에는 枓栱이 쌓여졌는데 쇠서部分이 연꽃으로 彫刻된 山彌檐遮로 架構되었다. 그리고 檐下는 浮椽을 달아 輕快한 反轉을 보이었다. 特히 內部에는 蓮花紋方塼이 깔려 있음은 現在하는 建物에서 보기 드문 것이다.

이 大雄殿을 七甲山 長谷寺金堂이라 불러왔을 볼때 當時 가장 훌륭한 法堂이었던 모양이다.

이 上大雄殿內에 있는 寶物 174號로 指定된 鐵造毘盧舍那佛座像附石造座臺는 長谷寺 上大雄殿 中央에 主尊像으로 奉安된 毘盧舍那佛로 竿臺式으로 된 石造蓮花座臺上에 鐵造座像을 安置하였다. 座臺는 四角盤石위에 八葉伏蓮紋을 彫刻하고 그 위에 細長한 中間柱를 세우고 다시 위에 八角仰蓮石을 받게 하여 마치 石燈臺石과 같은 一種特異한 座臺를 形成하였다. 佛像은 肉髻가 얕고 螺髮이며 兩耳는 길고 耳朶에는 開孔이 있다. 넓은 이마에 兩眉가 半月形으로 되였고 半開兩眼의 眼尾가 若干 위로 올라가고 鼻楔은 우뚝 솟았으며 口唇은 작다. 法衣는 偏右肩인바 衣紋은 寫實的이다. 結跏趺座에 智拳印을 取한 姿勢는 端雅하다. 赤是 上大雄殿東便 鐵造藥師如來座像과 樣式平法이 같으며 統一新羅時代의 所作으로 推定된다.

長谷寺 下大雄殿은 寶物 181號로 지정되었다. 元來는 공돌쌓기 築臺위에 正面三間 側面二間의 單層 맞배 기와집이다. 自然石으로 된 礎石위에 十個의 外陣柱인 平柱만으로 構成되어 있다. 柱間에는 굵직한

部材를 使用하여 문틀을 짜고 前面 右左間은 井字 살문의 分閤門을 달고 中央間은 같은 井字살문의 四分閤을 달았다. 맛배집의 境遇 大部分 貢包를 架構하지 않고 高柱를 使用하였음에 對하여 이는 高柱를 使用치 않고 前面과 같이 貢包로 架構되었다. 天井은 井字로 짜인 저를 天井이며 西側 天井川에는 天蓋가 營設되어 있다. 從前에는 壁畫와 丹靑이 華麗하였던 것으로 推測된다.

이 大雄殿內에 金銅藥師如來佛座像 寶物 第337號로 지정되었다. 全体의 衣紋이 부드럽고 姿勢가 高峻한데 彫法은 靈的이다. 宗教的인 表現이라기 보다는 感覺的이고 寫實的인 表現에 흘러 優雅한 麗來佛像의 特徵을 보이고 있다.

調査當時 腹藏物이 發見되었는데 그 腹藏物은 金剛經(高麗) 1冊 華嚴經(高麗) 1冊 妙法蓮華經등 佛經을 비롯 祝願文 銀製供養盒子 白銅鏡 服飾物등이 나왔다 함도 有名하다.

長谷寺는 깊은 山中에 자리해서 交通도 불편한 편이나 예날에는 많은 信徒들이 모여 들어 불공을 드리던 곳이다.

定山面 길가에 있는 西亭里九層石塔도 귀중한 문화재다. 西亭里 16번지 큰 길에서 들로 조금 들어간 자리에 놓여 있는 塔으로서 高麗初期의 작품이다. 높이 6 *m* 쑥돌로 九層을 쌓았는데 기단이 2段으로된 石塔이다. 上輪部는 煙滅되었으나 塔身은 제법 크고 4隅柱가 표시 되있으며 2層부터는 높이가 급격히 줄였으나 넓이가 우아하게 체감되어 있다. 추녀는 끝에까지 水平을 이루어 新羅石塔의 여운을 남기는 石塔이다.

또한 定山面 南泉里로 들어가면 三層石塔이 있다. 亦是 高麗時代의 作品으로 塔身과 層蓋石이 一石으로된 塔이다. 그리고 赤谷面 赤谷里 三層石塔이 있다. 옛날에 道林寺라는 절에 있었던 石塔으로서 上臺中石 일면에 三人의 童子를 조각하고 塔身과 層蓋를 一石으로 形成된 高麗中葉의 典形的인 石塔이다. 모두가 百姓의 손에 의해서 조각되고 만들

어졌음을 알 수가 있다. 또한 三國史記에

「 大旱 王帝漆谷寺祚雨 」

란 기록에 있는 漆谷寺도 赤谷面 花山里에 있다.

七甲山의 동쪽 山東文化는 庶民文化가 중점적으로 核心을 이루는 大衆文化의 본 고장이다. 佛教의 요람지가 되면서도 住民들은 傳統的으로 전해 내려오는 風習과 전통의식을 조금도 잊지 않았다.

百濟文化가 新羅에 이르러 그 傳統意識이 소멸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民衆意識으로 뿌리를 깊이 한 例로서 百濟의 宮中歌謠가 農夫들의 노래로 變身하여 定山들편에서 保存되고 있다는 事實로 보아서도 전통에의 의식의 강함을 알 수 있다.

七甲山 山西地方엔 文化財로서 寶物 197 號로 指定된 石造三尊石佛像이 있다. 靑陽邑 邑內里 4番地 2호에 있는 세 불상으로서 郡廳 뒷산인 牛城山 아래에 있는데 1961年 국고보조로 이곳에 옮겨 세웠다. 그 외로는 亦是 邑內里에 三層石塔이 있다. 높이가 2.6 m의 高麗時代의 塔이다. 靑陽이 百濟때 부터 고을이 있었던 지역이나 新羅에 이르러서는 十停이 있어서 文化의 發展은 定山쪽에 비해서 뒤떨어진다. 百濟文化의 直接的인 文化를 흡수할 수 있었던 悅己縣의 文化는 新羅와 高麗를 접으면서도 傳統意識을 가장 강하게 意識하고 살았으므로 高麗에 이르러서도 百濟文化의 遺產을 많이 남긴다. 木面의 支石墓는 나무를 심고 保護를 하며 제사를 지낼 수 있는 神聖地로 채택하는 文化가 山東文化라면 雲谷面 厚德里의 南方式 支石墓는 모르는 사람이 많을 정도의 山西式 소비문화속에 묻혀 왔다.

七甲山은 高麗時代에 이르러 더욱 住民의 祭檀으로 서광을 받게 된다. 新羅末葉부터 태동되는 性理學의 영향아래 학문적으로 性理學에 매력을 느끼는 人士들이 차츰 불어가는 靑陽地方에서는 高麗初에 이르러 벌써 書堂 구실을 하는 사랑채가 생기고 性理學의 흡수에 怒力 했었다. 新羅의 滅亡을 당연한 歸結로 생각하였던 七甲山의 人類들은 그

反抗的이고 傳統的인 遺産을 民衆의 전통의식에 歸結시키면서도 새로운 학문인 性理學에 눈을 돌리게 한다. 어느 고을을 莫論하고 遺産이 쉽게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七甲山에 마련되는 民間信仰의 祭檀과 祭式을 가장 價値있는 전통의식으로 감수하면서 性理學의 硏究로 進步的인 삶을 누리기 위해 怒力하는 고장으로 登場하는 것이다. 高麗에 이르러 武斷政治의 해가 길어도 그쪽에 神經을 쓰지 않았다. 洪城 고을에서 武人政治의 살벌한 樣相이 계속되어도 그쪽 事情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保寧 藍浦에서 나온 碩學 白頤正을 초빙하여 性理學의 講義를 들으므로서 七甲山下를 儒鄕의 고을로 造成해 갔다. 山神堂 山祭堂 城徨堂 祈雨祭檀 龍王檀의 祭式도 漢文을 導入해서 住民들 사이에 祭文이 暗記되어 갔다. 믿는다는 것은 오직 自身의 삶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는 것은 그들의 故鄕이 儒鄕으로 변하기 전부터 民間信仰의 전통의식이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當然한 變化로 생각하며 흡수하였다는데 長點이 있다. 그만치 七甲山의 文化는 옛풍습에 뿌리를 내린 高貴한 場所인 것이다.

第五章　朝鮮時代와　우리고장

歷史的으로 高麗時代는 34代 475年의 社稷으로 멸망하고 高麗時代의 武將 李成桂의 등극으로 朝鮮時代가 始作된다. 李成桂는 등극하면서 구 왕실의 遺臣들을 처단하고 開國功臣을 厚賞하며 排佛崇儒의 기취아래 重臣 鄭道傳과 無學大師의 意見을 들어 太祖2年 2月에 國號를 朝鮮이라 새로 정하고 그 해 3月에 鷄龍山에 新都를 開設하다가 그해12月에 京畿左右道 觀察使 河崙의 상소를 받아 들여 新都內 이양을 중단하고 太祖3年 10月에 漢陽을 首道로 정하여 그 후 그리로 옮긴다. 그는 다시 행정구역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데 太祖4年6月에는 道의 개정에도 착수했다.

靑陽郡은 여전이 監務의 지역으로 太祖2年 11月 개정 당시는 楊廣道에 해당되고 太祖4年 6月엔 靑淸道에 속하게 된다. 靑陽은 太祖4年에 監務를 두었으며 定山은 高麗때부터 監務를 두어 그대로 이어 왔었다. 그러나 太宗13年 대폭적인 행정구역 개혁이 있을때 成宗때에 이르러 그 完成을 보게 되는데 全國을 8道 4府 4大都護府 20牧 82郡 175縣으로 구분할 때 定山縣은 昇格되며 公州牧에 속했으며 靑陽縣은 洪州牧에 속했었다. 縣엔 六曹에 따라吏房 戶房 禮房 兵房 工房 刑房等 六房과 座首 別監 通引等을 두어 行政을 하였는데 六房의 관직은 세습제로 鄕吏인 衙前이 담당하였다. 또한 나라를 지키는 軍官制가 있었는데 靑陽과 定山의 軍官은 節制都府로서 縣監이 併任하였다. 그리고 驛張制를 두어 通信과 交通의 편리를 도모하였었다. 靑陽郡에는 驛丞이 있는 큰 驛이 金井道라 해서 지금의 斜陽面 金井里 驛村에 있었다.

文獻에 따르면

「 金井驛 在縣南十里 丞本道屬驛八. 光時 海門 靑潤 世川 龍谷 菱熊 下川 豊田 」

……東國輿地勝覽卷 19 靑陽縣條……

이라 하였는데 成宗以後 전국을 41道로 정할때는 祭訪 또는 驛丞을 두어 金井驛은 光時 海門 靑淵 世川 龍谷 菱熊 下川 豊田 昌德 日興 波泉 順城 興世 長時 花川等을 다스리는 큰 驛으로서 면모가 컸었다 한다.

定山縣의 楡楊驛은 定山面 驛村里에 있었는데 利仁道에 딸린 驛이었다.

院은 交通要路에 시설되어 길 안내와 旅館 구실을 하는 곳인데 대체로 험악한 지역이나 큰 나루터 부근에 있었다. 全國에는 院이 1220 個所 있었다. 인가가 없는 곳에 대개 외따로 있어서 官家라고도 부르던 곳으로서 院主를 두어 일을 보게 했다. 靑陽縣과 定山縣內의 院은 다음과 같다.

① 靑 陽 縣

○ 馬養院〈靑陽面 碧泉里〉
○ 仁旅院〈大峙面 上甲里 院洞〉
○ 乾川院〈飛鳳面 新院里 院洞〉
○ 加亭子院〈未 詳〉

② 定 山 縣

○ 彌勒院〈赤谷面 美堂里〉
○ 長壽院〈赤谷面 長壽坪附近〉
○ 修德院〈定山面 新德里 德洞〉

百姓들이 가을철에 곡식을 거두면 일정한 租稅를 내게 되는데 租稅로 거둬드린 곡식은 社倉에 두었다가 다시 漢陽 가까운 곳으로 실어가게 되어 있었다. 靑陽縣에서 걷어들인 租稅穀은 忠淸道 漕倉이 있는 慶陽浦(稷山)이나 貢稅串(牙山), 犯斤乃浦(沔川) 등지로 실어 가게 되어 있을때 靑陽에서는 犯斤乃浦로 실어갔고 定山은 貢稅串으로 운반하였었다. 그후 犯斤乃浦는 水深이 얕아서 成宗5年 以後는 貢稅串으

로 운반하였다.

太宗때 행정개혁이 있은 후 仁祖6年 2月 13日엔 忠淸道를 公洪道라 改稱하고 다시 또 忠洪道라고 부를 때도 있다. 그 후 다시 忠淸道라 부르게 되고 顯宗5年에 이르러서는 靑陽郡이 廢止되고 定山과 합쳐서 定陽縣이 되였으며 顯宗15年에 이르러 다시 靑陽縣이 부활되는 때도 있었다. 그 후에도 忠淸道는 몇번 名稱이 바뀌는데 正祖元年에는 洪忠道 純祖25年에는 公忠道 34年엔 忠淸道 그리고 忠淸左道 忠淸右道로 구분될때도 있었다.

百濟때부터 倭寇들의 侵犯은 우리나라 백성들은 퍽이나 괴롭혔었다. 원래가 섬나라에서 자란 그들은 凶年만 들어도 도적질을 일삼았으며항시 대상이 우리나라였다. 부지런하고 곡식을 싸놓기를 좋아하는 우리나라 백성들을 괴롭히는 倭寇들은 新羅때에도 여전 하더니 高麗때에 이르러서는 더욱 심해갔다. 高麗初葉엔 안정된 정세였으므로 그들의 뱃길이 뜸하다가 高麗가 무단정치이후 점점 안정을 잃어가자 朝飯事처럼 侵犯해 오기 시작했다. 드디어 高麗末葉에 이르러서는 大船團을 이끌고 蘇浦를 占領한 그들은 10餘年 동안을 노략질 하여도 조정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蘇浦(保寧郡 藍浦)에 거점을 잡은 왜구들로부터 약탈을 당한 靑陽郡 일원은 지금의 化城面 飛鳳面 一帶와 靑陽邑 大峙面一帶였다. 倭寇들은 集團的으로 侵犯해 와서는 家屋에 불을 지르고 殺人을 일삼으며 물건을 약탈해 갔다. 그래서 住民들은 마음놓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다. 特히 恭讓王때는 赤谷面 靑谷面까지 侵犯했으며 定山縣의 군사들에게 쫓기여 달아난 事件도 있었다. 朝鮮時代로 접어 들면서 社會의 安定이 이룩되자 그들의 侵犯은 뜸해졌다가 다시 中宗時代에 접어들면서 侵犯해 오기 시작하였으며 宣祖때에 이르러서는 대대적으로 戰爭을 일으키며 侵犯헤 오는데 이를 任辰倭亂이라고 한다. 任辰倭亂때는 國家의 위태로움을 감지한 定山의 杜村 任廷式이 용약 義兵을 이끌고 重峰 趙憲의 義兵을 가담하여 싸우게 된다.

定山邑誌에 따르면,

「 龍蛇之役 文烈公趙先生殉節于錦山 同時之殲 有七百義士 而傳其名者 僅四十一人 杜村任公 卽四十一之第二也 公諱廷式 字子憲 號杜村 官奉事 西河人 …… 略

賦性模直 有弓馬之才 及壬辰倭亂 重峰趙先生倡義 公幕兵首從 將赴陣 作杏樹歌 刻于樹 今逸不傳 盖忠憤語也 入拜家廟 以不滅倭寇誓不還泣訣 提鄕兵百餘云云…… 」

그는 원래 활을 잘 쏘았으며 말타기를 잘해서 용맹스러웠다. 의병 100여명을 이끌고 戰地에 나가 重峰과 靈圭와 합세하여 淸州에 머물고 있는 倭兵을 격파하여 청주를 탈환하고 錦山으로 나아가서 싸웠으나 力不足으로 700餘名과 戰死할때의 한사람이 되었다. 錦山에서 700여명이 죽었으나 이름을 알 수 있는 사람은 41名이라 하는데 任廷式은 그중의 한사람이라 한다. 任辰倭亂에서 입은 타격은 대단했다. 倭寇들은 물러갔으나 國土는 焦土化되다 시피 했다. 백성들이 먹을 것을찾아 헤매일때 이번에는 가뭄이 밀어 닥치기 시작했다. 百姓들이 草根木皮를 구하기도 힘들을때 우리를 도우러 온 明나라 군사의 행패가 심하여 部落에 내려오지도 못했다. 도적들은 사방에서 들끓기 시작했다. 그래도 田畓이 좋은 靑陽의 住民들은 다른 地方에 비해서 편한 편이었다. 근근이 하루를 접는 시간이 접혀갈때 이번에는 이웃인 鴻山에서 幕粟官 韓絢의 부하였던 李夢鶴이 난을 일으켰다. 그는 미리 조직적으로군사를 훈련시키고는 反亂을 일으켜 세상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그는 7月 6日에 賊徒 700餘名을 이끌고 反亂을 일으켜 鴻山縣의 東軒을 습격하여 縣監 尹英夏를 사로 잡고 林川을 함락하여 7日엔 定山에 쳐들어 옴으로 縣監 鄭大鄕은 이 사정을 洪州牧에 알리고 逃走하였다. 8日에는 靑陽縣 東軒으로 쳐들어 갔으나 縣監 尹承緖는 도망간지 오래였다. 다시 9日에는 大興郡을 점령하고 洪州牧으로 쳐들어 가려 하였으나 靑陽 사람 安世珉이 淸州牧使 崔湖 藍浦縣監 朴東普 그리고 龜項의 林得仁 林得義등이 협조하여 洪州牧使 洪可臣이 격파하였다.

朝鮮時代初葉 그 以前부터 性理學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靑陽 定山一帶에서는 壬辰倭亂을 前後해서 鄕校뿐만이 아니라 書堂에서 講論이 많이 베풀어지는데 이와같은 현상은 沙溪 金長生이 定山縣監으로 부임하였을 때가 絕頂期였다. 金長生은 性理學에 따른 禮學에 밝을 뿐만이 아니라 博學한 學者였다. 그는 民心의 方向을 禮學의 바른 成立에서부터 다스려야 한다는 持論아래 國民生活의 形式보다는 지양된 精神的安定을 바라고 環境造成 자체를 自然發生的인 面보다는 人間이 造成할수 있는 禮學에 따른 분위기에서 國民生活의 形式을 풀이 하기로 했었다. 그는 定山縣監에 부임하고는 연못을 만들고 연꽃이 피는 가운데서 고기가 놀게 하여 人爲的인 造成에서 얻을 수 있는 긍지를 직접 맛보며 生活化시킬려는 風流의 멋도 있었다. 儒鄕으로서의 서광이 비치는 七甲山周邊에 그의 부임은 큰 도움을 주었으며 保守的이고 학문적인 鄕土로서의 후광이 뒤에 크게 발돋음 하는 것도 이때의 成果라 하겠다.

朝鮮時代末葉 黨爭이 심할때 朝廷에서 벼슬을 버리고 손쉽게 落鄕하여 山林에 묻히는 선비가 많은 七甲山周邊과 思想도 金長生의 人爲的인 造成에서 맛볼수 있는 生活 즉 自然을 原則으로 하는 人間生存의 價値性의 還元이라고 後世의 學者들은 말한다. 朝鮮時代 肅宗때 四色黨爭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人間 本然의 思想的 긍지에서 이탈하는 行動엔 同行을 하지 않았으며 尤庵 宋時烈의 不幸에 모두 山林으로 돌아와서 經論을 읽을 수 있다는 대담한 人材들이 많은 곳이 靑陽과 定山고을의선비들이다. 가장 촉망되는 學者로 손꼽혔던 李靈栻이 靑陽邑 碧泉里에 落鄕하여 世上을 소요하는 것도 이에 原因이 있겠다.

朝鮮時代後期에 이를수록 七甲山周邊의 性理學者들은 급변하는 情勢에 先進性을 띠기 시작한다. 卽 人爲的인 造成에서 얻을 수 있는 自然에의 歸結에서 實學思想에 심취하게 된다. 地域的으로 急進的인 化城面一帶엔 時代의 흐름인듯 天主를 모시는 카톨릭 信者가 늘어나고 우리나라 두번째의 神父 崔良業神父가 탄생하는가 하면 그 후예들로 이룩되는 獨立性을 긍지하는 人物들이 登場하며 傳統을 아끼는 風土로 百

濟滅亡後 꾸준히 그 後孫들로 命脈을 이어오는 定山縣地方에서는 性理學에서 急進的으로 변묘와 改革을 주장하는 學者들이 많이 배출되는 것도 우연한 現實이 아니였다.

日本帝國主義의 摩手가 서서히 우리나라로 다시 뻗쳐올때 선비들은 祖國의 危機를 직감하고 장날마다 市場에 나와서는 現實을 규탄하며 大衆의 규합에 앞장 섰었다. 한 國家의 힘은 국민의 힘에 달렸다는 것을 더욱 切實하게 느낀 그들은 私財를 털어 장날이면 장터에 나와 국민의 團合을 呼許하며 將來 유사시를 위해서 국민의 규합에 힘썼다. 當時 선비들이 장날이면 나왔던 靑陽郡內 市場과 開市日은 다음과 같다.

○ 靑陽場 : 靑陽邑 邑內里(2, 7, 12, 17, 22, 27)
○ 金川場 : 斜陽面 大鳳里 쇠내다리(4, 9, 14, 19, 24, 29)
○ 合川場 : 化城面 山亭里 모듭내(5, 10, 15, 19, 25, 29)
○ 雲谷場 : 雲谷面 新垈里(1, 6, 11, 16, 21, 26)
○ 定山場 : 定山面 西亭里(5, 10, 15, 20, 25, 30)
○ 美堂場 : 赤谷面 美堂里(3, 8, 13, 18, 23, 28)
○ 靑所場 : 靑南面 靑所里(4, 9, 14, 19, 24, 29)
○ 安心里場 : 木面 安心里(4, 9, 14, 19, 24, 29)

靑陽郡內(現在)의 郡民들의 깨우침에 獻身한 보람은 郡民들이 倭寇打倒뿐만이 아니라 外勢의 排斥에 衆論이 모아질때 日帝의 植民地를 만들려는 야심이 무섭게 胎動될때였다. 나라는 오직 百姓이 지켜야 하고 百姓의 王인 朝廷의 君主가 斷案을 내려 이 나라의 主權을 堅持하여야 한다고 鬪爭한 사람이 바로 木面 慕德祠의 勉庵 崔益鉉 이었다. 그는 경기도 抱川에서 출생하여 儒林의 名門인 李恒老의 弟子와 哲宗 6年(1855)에 科擧에 及第하고 벼슬길에 올라 掌會되고 1873年 호조참판으로 상소하여 만동묘(萬東廟)를 복귀하고 서원을 廢止하는등 大院郡의 정책을 반대하다가 濟州島에 귀양갔었다. 그 뒤에 한일통상

을 반대하여 정배 되었다가 특사를 받아 1894年 互曹判書로 임명되고 후에 中樞院議官 議政府(贊政)을 배명 받았으나 사퇴하고 光武九年(1905) 乙巳條約이 체결되자 이를 반대하여 다음해 6月에 林炳瓚과 全羅道 淳昌에서 義兵을 일으켜 항전하다 체포되어 林炳瓚 柳濬根등과 함께 對馬島로 유배되었다. 그후 그곳에서 그는 임병찬등의 권고를 듣지 않고 끝내 단식을 하여 운명하였다. 그는 오직 祖國만을 생각하는 愛國者였는데 그는 木面 사람이다. 勿論 定山縣에서 태어난 것은 아니나 反日思想이나 나라의 改革에 따른 새로운 社會建設을 앞둔 識見은 아이러니칼하게도 이곳 사람들과 相通되는 것이 있다. 乙巳條約이 체결되는 해의 전후를 통해서 나라안은 어수선 했다. 朝鮮時代末葉의 國運이 기우는 歲月인듯 朝廷에서는 갈피를 못잡았다. 또한 政治的改革이 따르지 않았던 500年.歷史가운데 鎖國的인 政策에 따른 開放政策이 따라야할 때의 미묘한 狀況에서 外侵을 막을 힘도 없었다. 또한 오랫동안의 特權階級的 社會制度에 따른 百姓들의 不平을 소모할 힘도 貧弱했다. 百姓을 억압한 制度가 審判을 받아야 할때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 東學이다. 崔濟愚의「人乃天」즉「儒의 倫理와 佛의 覺性과 仙의 養氣는 人間性의 自然한 品賦이며 天道의 固有한 部分이나 吾道는 無極大源을 잡는 者라하여 儒佛仙 三教의 合一」임을 주장하므로 時代的으로 많은 사람이 따르지 않을 수 없는 要件이었다. 東學은 全國에 퍼지면서 그 수요가 늘어가기 시작하였으며 靑陽 定山에도 이에 호응하는 자가 많아졌다. 드디어 東學亂이 일어나자 定山 木面 靑南의 東學徒들은 이에 호응하여 투쟁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民衆의 解放를 외치며 직접 싸움에 關與하였으나 公州 牛金峙에서 敗하자 집으로 돌아와서는 참살을 당하게 되는데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定山郡	木	面	松竹洞	尹碩士 聖根
〃		〃	大坪洞	尹碩士 商擧
〃		〃	鐵馬場	吳碩士 重三
〃		〃	內外洞	尹生員家

定山郡	木　面	鐵馬亭	金進士家
〃	〃	無愁洞	權碩士家
〃	靑南面	外直里	權擧官家
〃	冠　面	美洞村	尹光達家
〃	西　面	全谷坪	林能俊

以上은 姓名이 밝혀진 대로이며 이 이외에도 定山 乾芝洞을 쳐서 東學 4, 5名을 포박하고 李七千 宋己甲 李甲浴 洪宗一 卞千石 黃丁汝 등이 잡혔으며 東學의 巨物인 28人은 西亭里에서 砲殺하였는데 기록이 없어서 알길이 없다. 靑陽의 東學徒는 비단 여기 뿐만이 아니었다. 斜陽面 大峙面 飛鳳面과 木面 定山 靑南 赤谷엔 많은 東學徒가 있었으나 禍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高宗30年에 東學의 亂을 치른 후에도 民心은 흉흉하였다. 百姓들은 日帝의 侵略에 더욱 불안 하였으며 드디어는 光武9年에 乙巳保護條約이 맺어지자 국민들은 노골적으로 반발을 일삼았다. 한 主權國家로서 속국이 되는 쓰라림에 통곡하는 소리가 하늘을 찔렀다. 靑陽 定山의 住民들이 峰起하여 朝廷을 改革하자는 소리와 乙巳保護條約을 폐기 시키자는 소리가 드높을 때 參判 閔宗植이 七甲山下 天庄里에서 義擧의 횃불을 들었다. 그의 방문을 본 靑陽의 郡民들은 구름처럼 모여 들었다. 그들은 봉기하여 단숨에 藍浦 保寧을 습격하고 20일에 洪州에 突入하였다. 洪州에서는 倭兵 2個中隊와 政府側鎭衛隊 150餘名과 밀고 밀리는 싸움이 3日間 계속되었으나 끝내는 보람도 없이 敗戰하고 말았다. 洪州義兵싸움에 參加한 靑陽의 志士는 安炳瓚, 金德鎭, 李世永이 있었다. 安炳瓚은 洪州에서 敗한 다음 化城面 山亭里에서 잡혀 그들의 취조를 받았으나 끝내 굴하지 않은 抗日鬪士였으며 金德鎭, 李世永도 그리 하였다.

韓日合併後 倭寇의 執政이 시작되었다. 나라 잃은 서러움에서 志士들은 산속에 숨었으며 日本帝國主義下의 슬픈 세월이 36年間 계속되고 1945年 8月 15日 日本의 敗亡으로 말미암아 八. 一五 解放을 맞이하게 되었다.

第二編　青陽郡의 諸神祭

第一章　序　　論

우리 祖上들은 옛부터 많은 神을 모시고 살아왔다. 人類가 定着하면서 太陽과 달을 믿었고 하늘을 믿었다는 것은 공통된 현상이지만 바람에 제사를 지내고 연못에 돌에 강물에 山에 나무에 제사를 지내며 스스로의 所願을 풀기도 했다. 諸神祭를 지내는 처음은 감탄이었고 律動이었고 歡聲 및 탄성에서 비롯되었다고도 心理學者는 말한다. 人間들은 未知의 世界에 憧憬보다는 恐怖의 對像으로 생각하였으며 人間을 支配하는것은 諸神들이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多樣한 神祭가 등장한것이다. 우리나라의 諸神祭는 山神을 崇仰하는 것이 上古로부터 처음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山神祭의 처음을 確實히 文獻上에서 發見못하는 요즈음 우리나라에서는 扶餘의 迎鼓와 高句麗의 東盟, 馬韓의 天君等의 祭天을 諸神祭의 처음으로 손꼽는다.

扶餘의 영고(迎鼓)는 하늘을 제사 지내는 儀式으로서 맞이 굿 또는 迎神祭라고도 부르는데 秋收가 끝난 12月에 동네마다 사람들이 한곳에 모여 天神에게 제사 지내고 歌舞를 즐겼다고 되어 있다. 秋收感謝祭로서 서로의 친목을 도모하고 중요한 일을 의논하여 결론을 얻기도 하고 죄수들을 놓아 주는 풍습도 있었다 한다. 또한 高句麗의 東盟은 高句麗에서 10월에 지내는 祭典儀式으로서 東明이라고도 하는데 魏志의 高句麗傳에는

「王都 동쪽에 수혈(隧穴)이 있어 10月에 國中大會를 열고 수신(隧神)을 제사 지내며 목수(木隧)를 神座에 모신다」

고 기록되어 있다. 수신(隧神)은 즉 주몽(朱蒙)의 어머니로 민족적인 신앙의 대상이며 목수(木隧)는 나무로 만든 곡식을 말한다.

일종의 추수감사절이다. 馬韓의 天君(일명 蘇塗라고도 함)은 제사와 정치가 분리되지 못했던 馬韓을 중심으로 한 三韓에서는 제사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 매년 한 두차례에 걸쳐 각 읍별로 天君을 선발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제사 지내며 질병과 재앙이 없기를 비는 제사다. 제사를 지내는 장소를 蘇塗라 하는데 그 명칭은 그 장소에 높은 나무를 세우고 솟대(立木)를 세우고 제사를 지낸다. 솟대(蘇塗-立木)는 제사 지내는 도중엔 매우 신성시함으로 제사를 지내러 온 사람은 비록 죄인이라 하더라도 처벌하지 않았다 한다.

이와같은 제신제가 우리나라 古代에 있었던 信仰이라 하는데 이와같은 방법엔 後世에 이르러서도 약간의 변형은 있으나 답습해서 전해 내려 온다. 즉 가을에 곡식을 거두고 감사제를 지낼때 풍악을 울리며 기꺼워하는 제를 扶餘의 迎鼓에 비유할 수도 있고 馬韓의 天君은 別神祭等 다른 제식에 따른 諸神祭에 비교할 수도 있다. 現代에 있어서도 公州郡 孔岩面 上華里에 가면 蘇塗가 서 있는데 여기에서 지내는 제사는 옛것과 비슷한 면모다.

上古時代에 있었던 祭天은 三國時代에 이르러서는 百濟에 日山 烏山 浮山이 있었고 新羅엔 大祀 中祀 小祀 等의 山神信仰으로 변해갔으며 高麗엔 三蘇制의 山神信仰이 있었다 上古時代에 단순하였던 祭天卽 迎鼓 東盟 天君 等이 山神祭로 변해간 것은 어떤 對像物을 主觀的으로 指定을 해서 諸神祭를 올렸을 뿐 그 뜻은 同一하였다고 봐야겠다 朝鮮時代에 이르러서도 山神信仰은 그대로 계속된다. 더구나 山神信仰이 곳곳에 必要함을 느끼게 되고 국민들은 祠堂과 제향을 지내는 場所까지 指定하여 建物을 세우고 神聖視하게 되는데 公州牧의 鷄龍山祠나 洪州牧의 月山의 祠堂, 泰安의 白華山 太一殿, 德山의 伽倻岬祠는 우리 地方에 있어서의 좋은 實例들이다.

國家에 있어서는 五獄의 山神祭堂도 이쯤해서 登場하게 되는데 諸神祭의 必要性을 느낀 部落單位別로 諸神에 대한 信仰에 더욱 熱을 올려 곳곳마다 山祭堂 神堂 龍王堂 等이 많이 생기게 된다. 이것은 高麗

時代에 佛教 一邊倒였던 佛教信仰에 따른 性理學的 批判에서 信仰에 대한 혼돈에서 비롯된 국민들의 固有한 信仰을 堅持하자는 뜻에서 그 分布狀況의 폭이 넓어졌다는 事實도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七甲山을 둘러싼 山東 山西地方에서도 많은 山神祭 및 諸神을 위한 神祭를 지낸다. 여기 지금의 靑陽郡 領域內에 있었던 諸神祭의 면모를 살펴보기로 한다.

第二章 諸 神 祭

第一節 山神祭

① 長谷洞 山神祭(大峙面 長谷里 長谷洞)

靑陽郡內에서 七甲山神을 信仰하는 山神祭로서 그 規模나 歷史的 傳統이 오랜 山神祭는 大峙面 長谷里 長谷洞 山神祭이다. 山神祭의 처음은 高麗때부터라고 한다. 七甲山에 山神堂을 建立하고 堂內의 設置에 호랑이를 탄 山神의 掛像이 奉安되었는데 山神의 掛像은 溪水가 흐르는 깊은 산골 큰 나무아래에 廣抱載冠에 수염이 난 遣士風인 山神이 큰 호랑이를 타고 산에서 나오는 모습을 그렸다.

山神祭는 每年 春秋로 일년에 두번씩 제사를 지낸다. 즉 매년 年初에 또한 가을 10월 상달의 吉日을 택하여 지냈다. 제사에 따른 종사관 獻官 祝官 化主등 제관은 洞民中에서 청결하고 복덕한 남자로 하여금 선발하였으며 제관들로 하여금 음식을 차리게 했다. 제사때엔 牲豚을 올리며 당일 자정에 執禮를 하는데 山神祭를 지낼때에는 집집마다 대문앞에 黃土를 깔고 魚肉食을 금했으며 마을 전체 住民들이 기원을 했었다. 長谷洞 山神祭에 따른 祝文은 다음과 같다.

維歲次 某年某月干支朔某日干支長谷洞居民等(姓名)

敢昭告于

七甲山王大神　神人以和　不言以親　維嶽降靈　曰德曰仁　撫鎭玆土
以安居民　百妖逃形　禎祥曰泰　謹以菲物　恭獻尙饗

② 천쟁이 山神祭

位置：定山面 天庄里　七甲山上

七甲山 主峰으로부터 가장 높은 지대에 位置한 部落을 천쟁이라고 부르며 또한 천장(天庄)이라고 부른다. 50餘戶의 農家의 마을인데 여기를 중심으로 지내는 山神祭를 천쟁이山神祭라고 부른다.

部落의 북쪽에 位置한 主峰을 향하여 1.5㎞쯤 올라가면 下神壇이 있고 여기로부터 위쪽으로 100餘m 거리에 上神壇이 있는데 이곳에서 山神祭를 지낸다. 上下 똑같이 1坪 정도의 石壇을 쌓았으며 그 주위는 무성한 수림이 神壇을 지키고 있다. 제사는 매년 음력으로 12월 25일 자시에 지내는데 部落民 가운데서 生氣福德한 사람을 선출하여 祭官으로 삼고 보조자 數人과 樂隊가 참가한다. 제사는 上神壇 下神壇 차례로 지내는데 술 과일 포 떡등을 제물로 바치고 祭官은 全部落의 각호(各戶) 家長의 姓名을 호칭하면서 「山神靈任 하강 소지입니다」하고 소지를 올리어 호별로 기원을 하게 되는데 또한 農樂을 울리곤 한다. 그리고 祝文은 없으므로 자연발생적인 住民의 신앙임을 알 수가 있는 固有한 山神祭다.

③ 쇠머리 山神祭

位置：大峙面 鵲川里

大峙面 鵲川里 쇠머리에 山神堂이 있다. 山神堂엔 進士格인 山神靈이 호랑이를 타고 나무숲에서 나오는 掛像이 있는데 위에 侍者가 表示된 것이 특색이 있다. 掛像 앞에는 유기제의 청수기 잔대 등이 보인다. 쇠머리 山神祭는 七甲祭를 수반한 寺刹의 山祭堂과 같은 性格같다.

祭祀日 祭物의 선택은 일정하지 않은 山神祭다.

④ 너븐밭 山神祭

位置 : 大峙面 廣金里 廣田

七甲山아래에 자리한 廣金里 너븐밭에 七甲山神을 모시는 山神堂이 있다. 山神祭는 每長 음력으로 正月 14日 지내는데 祭官의 선정이나 제사 방식은 다른 곳의 제사방식과 같으나 祝文中에

「人旺物豊 災去祥來 疫癘勿入 虎豹遠遁」

이라고 한 것을 보면 山神祭의 目的이 災禍 疾患 虎害等을 除去하고 全部落이 豊作 泰安하기를 祈願하는 山神祭 같다.

⑤ 其他 山神祭

1. 柿田 山神祭

位置 : 大峙面 柿田里

每年 음력으로 正月 15日 子時(밤)에 제사를 지내며 虎患을 방지하고 洞里의 安樂을 비는 山祭로서 山祭堂이 있는데 山神靈을 모셨다.

2. 鎰店 山神祭

位置 : 大峙面 農所里 鎰店

每年 음력으로 正月 25日 子時(밤)에 지내며 虎患을 防止하고 部落의 편안하기를 祈願하는 山神祭를 지내는데 山神堂이 있다. 山神靈을 모셨다.

3. 柿木洞 山神祭

位置 : 定山面 大朴里 감나무골

每年 음력으로 正月 14日 子時(밤)에 제사를 지내는데 호랑이를 비롯한 멧돼지 산짐승의 피해를 막고 마을에 질병 없기를 비는 山神祭로 山神靈을 모셨다.

4. 翰林峯 山神祭

位置 : 定山面 馬峙里 재장골

每年 음력으로 11월 2일 자시(밤)에 산신제를 지낸다. 翰林峯山神을 모셨는데 산짐승으로부터의 보호와 마을에 질병이 없기를 빌며 마을안의 만복되기를 빈다.

5. 舍人峯 山神祭

位置 : 定山面 馬峙里 마티

每年 음력으로 11月 2日 子時(밤)에 제사를 지낸다. 호랑이를 비롯하여 산짐승으로부터의 保護와 마을에 질병이 없기를 빈다. 舍人峙山神을 모신 神壇이 있다.

6. 分香 山神祭

位置 : 赤谷面 分香里 分香山

每年 음력으로 正月 3日 또는 正初에 날자를 잡아서 제사를 지낸다. 마을에 질병이나 화가 미치지 않도록 방지책으로 제사를 지내며 각 각호의 안길번성을 위해서 山神祭를 지낸다. 分香山神을 모시면 山祭壇이 있다.

7. 大沙川洞 山神祭

位置：赤谷面 樂只里 大沙川洞

七甲山神을 제사 지내는 山神堂이 있다. 七甲山神에게 산짐승으로부터의 보호와 疾病으로부터의 保護 그리고 各 家宅의 安吉繁盛을 기도하는 山神祭를 지낸다. 山神堂는 每年 정월 15일 이내에 택일을 해서 지낸다.

8. 石峯山神祭

位置：靑南面 東江里 東岱洞

每年 正月 15日 子時에 제사를 지낸다. 바위가 아기를 업은것처럼 생긴 바위가 있고 바위 셋이 솟아 있는 石峯山의 山神에게 제사를 지낸다. 마을에 화가 미치지 않도록 빌며 마을 각 家宅의 만복되기를 기원하는 山祭다. 山神壇이 있다.

9. 어재울 山神祭

位置：化城面 九在里 어재울

每年 정월 상순에 택일을 해서 山神祭를 지낸다. 마을에 편안이 깃들기를 빌며 풍년이 돌아오기를 축원하는 山祭를 지낸다. 山祭壇이 있다. 山神靈을 모신다.

10. 너븐들 山神祭

位置：化城면 廣坪里 너븐들

매년 음력으로 正月 中旬에 날자를 택일해서 제사를 지

낸다.

山神靈을 모시는 제사로서 마을에 만복이 있기를 빌며 豊年을 빈다.

11. 九峰山 山神祭

位置：化城面 梅山里 산등(山洞)

매년 음력으로 정월 초순에 날자를 잡아서 제사를 지낸다. 山神堂이 있는데 九峰山神을 모셨다. 마을에 화가 미치지 않도록 보호를 빌며 매년 풍년이 있기를 기원한다.

12. 飛鳳 山神祭

位置：飛鳳面 中墨里

비봉산에서 지낸다. 마을의 守護를 祈願하며 福이 깃들기를 빈다. 또한 豊年이 되기를 山神에 비는 山祭를 지내는데 山神堂에는 畫像이 奉安되어 있다.

飛鳳山神을 모셨다.

13. 寬山 山神祭

位置：飛鳳面 寬山里

매년 정월초 5일날 子時에 제사를 지내는데 山神堂이 있으며 白月山 山神靈을 모셨다. 山神祭를 지낼 때에는 집집에 하나씩 燒紙를 올리며 산짐승인 호랑이로부터의 보호와 疾病을 막고 동네와 家內의 大吉康寧함을 祈願한다.

第二節 長 丞 祭

長丞의 기원은 先史時代에 있어서 境界標 里程標等 標識을 한 立石 나무 蘇塗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實은 標識板 役割에서 고을의 守護神으로도 변천한 것이 長丞인데 三韓時代에 邑落의 神壇인 蘇塗에서 由來된것이 守護神 및 神格位置로 民間信仰의 對像이 된것 같다. 長丞은 後代에 陰陽說과 五行說이 첨가되어

天上逐鬼大將軍
地下逐鬼大將軍
東方靑帝逐鬼大將軍
西方白帝逐鬼大將軍
南方赤帝逐鬼大將軍
西方黑帝逐鬼大將軍
中央黃帝逐鬼大將軍

으로 불리우는 오늘날의 長丞으로 이루워진 것이다. 長丞엔 現在 전해 내려오는 것으로 木柱形長丞 立石形長丞, 石牌形長丞等이 있는데 靑陽郡에 現在 殘存되어 있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다.

1. 大峙面 大峙里 大峙洞長丞
2. 定山面 海南里 海南洞長丞
3. 定山面 松鶴里 松鶴洞長丞
4. 定山面 天庄里 天庄洞長丞
5. 定山面 龍頭里 龍頭洞長丞
6. 定山面 海南里 毛好洞長丞
7. 定山面 大朴里 柿木洞長丞
8. 赤谷面 美堂里 美堂長丞

靑陽郡內 長丞은 대부분이 朝鮮時代까지 定山縣 領域內에 자리해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定山縣內가 過去부터 民間信仰에 따른 투철한 傳統意識을 지녔다는데 原因이 있다. 高麗때의 佛教 一邊倒나 朝鮮時代의 性理學的 思潮에 물들이지 않은 大衆本位의 信仰과 그 意識속에 生活의 터전이 있었으므로 保存이 可能하였으며 높이 評價해야겠다.

靑陽郡內에 殘存해 있는 장승제의 狀況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大峙 長丞祭

大峙長丞祭는 每年 음력으로 正月 十五日에 거행된다. 大峙里 한티部落 入口에 도로변 양측으로 木柱形 장승이 서있는데 여기에서 장승제를 지낸다. 지금은 장승을 한쪽에 모은 경향이 있는데 장승의 木柱 위쪽은 鬼面相을 하고 가슴부문 복부부문에 前面으로 먹글씨로 장승의 명칭을 새겼다. 즉 한쪽에는 天上天下逐鬼大將軍이라 하였고 한쪽엔 東西南逐鬼大將軍이라 하였는데 매년 正月달 장승제일때는 장승을 새로 깎아 세우고 장승제를 계속되는 동안에 많은 장승이 集郡하게 되었는데 이곳을 累石壇이라고 부른다.

장승제 제사를 지낼때에는 祭官 二人과 化主 一人을 部落中에서 정결한 사람으로 선택을 하고 제사에 임하는데 그들은 새로 만든 장승을 세우고 금줄을 띠고 청결하게 한 다음 제사를 지낸다. 祝文은 없으나 마을집집마다 호명하며 燒紙를 올리고 盜賊의 侵入이나 疾病의 侵入을 막아줄 것을 기원하며 동리가 太平大吉하기를 기원하는 장승제이다.

2. 龍頭洞 長丞祭

龍頭里 龍頭洞 入口에 槐木이 서있고 그 아래에 큰바위

가 있는데 이곳에 자리한 장승을 위하는 제사를 지내는것은 龍頭洞 長丞祭라고 부른다. 長丞祭는 每年 마을에서 생기복덕한 사람을 선출해서 獻官과 祝官으로 委任하고 제사는 正月 14日날 지낸다.

龍頭洞 長丞은 木柱鬼面像에 天上天下逐鬼大將軍과 東西南北逐鬼大將軍이라고 먹글씨로 表示한것은 대티의 長丞과 비슷하다. 龍頭洞 長丞祭의 祝文은 다음과 같다.

維歲次 干支 某年某月 干支朔某日干支 龍頭洞 ○○○
等 謹伏告于

路神之位 天尊地卑 日月星辰 調和陰陽 萬物之衆 惟人最貴
人人不願 文武俱美 富貴兼全 人人泰平 家家安樂 吉慶日至
福祿歲增 敢請
東方靑帝將軍 元回春氣 萬物和暢 兩露順調 慶福隨興 俾無
伐木 動土之忌
南方赤帝將軍 位尊明都 萬事享通 財富人殷 所望如意 俾無
回祿 口說之忌
四方白帝將軍 肅將天威 逐去災異 秋頌結果 百穀豊登 俾無
疾病 災害之忌
北方黑帝將軍 分件室辰 均等冬藏 收納錢穀 倉穀盆滿 俾無
偸盜 訴訟之忌
中央黃帝將軍 總頌一調 主張萬事 迎祥逐災 一里安穩 俾無
是非 相爭之忌
伏願伏祝 吉日良辰 謹以酒果 齊沐敬禱祇 薦于 路神之靈
尙 饗

3. 海南 長丞祭

位置：定山面 海南里 海南洞

해남장승제는 매년 음력으로 정월 14日 밤에 지내는 제사다. 장승은 石碑形 長丞으로서 東南靑赤逐鬼大將軍과西北白黑逐鬼大將軍인데 제사를 지낼때에는 마을 전체의 각 호별로 燒紙를 올리며 萬福되기를 빈다.

4. 毛好里 長丞祭

位置：定山面 海南里 毛好洞

洞里 入口가 累石壇이 되고 古木이 서있는 곳에 세워져 있었다. 長丞은 木柱鬼面形 長丞으로서 天上天下逐鬼大將軍과 東西南北逐鬼大將軍으로 되어 있었다.

每年 음력으로 正月 十四日 초저녁에 장승제를 지내는데 祝文은 없으며 祭物을 陳設하고 마을 各戶 마다 차례로 소지를 올리며 마을과 집집마다 편안이 깃들기를 빈다.

5. 松鶴洞 長丞祭

位置：定山面 松鶴里 松鶴洞

洞里 入口에 木柱形鬼面像으로 東西南北逐鬼大將軍 이 란 長丞이 서있었다. 매년 음력으로 正月 十四日날 제사를 지내는데 매년 제사를 지낼때에 장승을 만들어 세우고 장승제를 지내며 여러 雜鬼의 侵入을 막고 疾病없이 편안하게 保護해줄 것을 기원한다.

6. 감나무골 長丞祭

位置 : 定山面 大朴里 柿木洞

長丞은 石碑形長丞으로서 東方青帝逐鬼大將軍과 西方白帝逐鬼大將軍의 二柱가 서있었다.

每年 음력으로 正月 十四日에 밤에 長丞祭를 지내는데 장승에게 諸惡鬼가 마을에 侵入이 없도록 保護해줄 것을 빌며 마을이 편안해 지도록 지켜달라고 기원을 한다. 제사때 祝文은 없다.

7. 천장이 장승제

位置 : 定山面 天庄里 天庄마을

東方青帝逐鬼大將軍인 木柱鬼面像의 장승이 서있다. 매년 음력으로 12월 25일 밤에 장승제를 지낸다. 마을에 질병이 없기를 빌며 만복이 깃들게 해달라고 축원을 한다. 제사때 祝文이 없다.

8. 美堂 長丞祭

位置 : 赤谷面 美堂里 美堂市場

美堂里 長丞祭는 이 고장에서 일년중 가장 큰 행사였다. 長丞은 美堂市場을 中心으로 東西南北 및 中央 五個處에 별도로 배치되어 東方青帝逐鬼大將軍 西方白帝逐鬼大將軍 南方赤帝逐鬼大將軍 北方黑帝逐鬼大將軍 中央黃帝逐鬼大將軍등 옛날부터의 형태 즉 전해 내려오는대로 五方位神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제사는 매년 正月 十四日 밤에 지내며 마을 뿐만이 아니라 市場에 마귀의 侵犯이 없게 防止해 줄것을

빌며 시장이 잘 되게 해달라고 축원을 했었다. 祝文을 읽고 제사를 지낼때는 성대한 행사가 되었었는데 二十餘年前부터 基督教의 성행으로 中止되었다.

第三節 立 石 祭

原始信仰形態로서 우리나라엔 곳곳에 立石이 서있는것을 간간이 볼수가 있다. 立石은 마을을 지키는 守護神 역할을 하는 곳도 있고 高麗時代에 이르러 지역민들 사이에 파고든 地理風水說에 따라 地形의 방패역할을 하기위해 세워진 경우도 있으며 先史時代부터 人間이 존엄성있게 살아온 지역에 標識으로 세워두고 그 곳을 神聖視하기 위해 세워두는 경우도 있다. 하여간 立石은 지역민들의 우발적인 현상에서 세워지는 部落神의 一種인 것이다. 마을에 어느해에 큰 액운이 닥쳤을 경우 그 액운을 막기위해 세워두고 믿음으로서 慰安을 삼는 경우도 있다.

靑陽郡엔 先史時代의 遺跡地인 池谷里 간두문(干杜門)마을앞 밭에 支石이 서있는 것을 볼수가 있다. 支石의 높이는 185 *cm*이며 폭은 95 *cm*에 제일 작은 폭의 부분이 45 *cm*되는 화강암이다.

先史時代의 遺跡地인 이곳엔 支石에서 西南쪽으로 약 200 *m* 지점에 松林새에 南方式支石墓가 二基있으며 또한 900 *m* 지점에 亦是 先史時代의 石官墓室을 가진 支石墓群이 발견되여 이 지역이 先史時代의 人類定着地였음이 確證되는데 이에 따른 해석으로는 여기에 세워진 立石은 先史時代부터 세워진 立石으로서 當時 마을이 있었던 지역의 守護神的 役割을 한 立石으로 보고 있다. 즉 마을에 萬福이 깃들이기를 빌며 액운이 있을때는 제사를 지내며 받들었을 것이고 外部로부터 疾病 또는 산짐승의 습격 및 수난이 있을때엔 마을을 지켜달라는 祭式도 있었던것 같다. 그러나 그 立石祭가 있었다는 事實은 確證이 되지만 祭祀에 따른 形式이나마 전해오는

것이 없어서 알 길이 없다. 立石祭가 이곳에서도 每年 있었다는 것만이 구전으로 전해 올뿐이다.

第四節 洞 和 祭

青陽郡에는 獨特한 部落祭로 洞和祭라는 部落祭가 있었다. 洞和祭는 祭祀 지내는 方法에 있어서는 山神祭와 비슷하나 每年 음력으로 正月 上旬에 긴 장대를 세우고 그 장대에 짚을 감아서 세우고 部落民들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한 지게씩 장대옆에 쌓아 두고는 그 나무단에 불을 붙혀서 나무단이 타면서 장대가 쓰러지는 방향의 部落은 不吉하고 反對 方向의 마을은 吉하다 해서 不吉하다는 마을에서는 마을이 불안하지 않도록 방패막이를 한다는 部落祭이다. 또한 洞和祭로서 다른 方法으로는 장대에 짚을 감아서 세우고 이를 동화대라하여 그 동화대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똑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인 다음 장대가 불에 타서 쓰러지는 방향의 마을이 不吉하다는 祭式도 있다. 朝鮮時代以後에도 盛行하였던 部落祭인데 이 部落祭를 성황리에 매년 지냈던 마을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斜陽面 溫岩里 돌보部落
2. 斜陽面 大鳳里 牛口部落
3. 大峙面 鵲川里 鵲川部落
4. 定山面 天庄里 天莊部落
5. 定山面 馬峙里 點心部洞
6. 定山面 松鶴里 果木洞部洞(現存)

◎ 溫和里 洞和祭

位置 : 斜陽面 溫岩里 돌보部落

매년 음력으로 정월 보름날 온암리 돌보마을 앞에서

동화제를 갖는다. 장대에 짚을 감아서 세운다음 동화대라 하고 그 앞에서 마을에서 선출된 도화주 면화주 시화주 집사자가 제사를 담당하여 음식을 차리고 지내는데 焚香 再拜 獻爵 祝文을 읽으며 동리의 安康과 豊作을 빌며 各 戶別로 燒紙를 올리며 집안의 大吉함과 幸運이 깃들기를 빈다. 그리고 동화대를 쓰러뜨리는 놀이를 한다. 祝文은 다음과 같다.

祝 文

維歲次干支正月干支朔十五日干支化主○○○敢昭告于

里杜之神 維此孟春 若時昭事 一里康吉 百穀豊穰 冀賴神休 菲禮將成 維神顧歡 永尊厥居

尙 饗

第五節 龍 王 祭

龍王에 대한 信仰은 山神信仰과 함께 上古時代부터 있었던 大衆의 信仰이었다. 上古時代부터 散發的으로 전해 내려오던 龍王信仰이 新羅時代에 이르러서는 國家的 祭祀制度로 제사를 지내게 된다. 卽 四海로 東쪽은 河等邊 南쪽은 兄邊 西쪽은 未陵邊 北쪽은 非福山 等이 있었으며 四瀆으로 동쪽엔 吐只河 남쪽엔 黃山河 서쪽은 熊川河 북쪽엔 漢山河가 있었는데 이것이 新羅時代엔 龍王神 水神을 信仰하던 大海名川인 것이다.

東國輿地勝覽 17卷에도 公州牧 祠廟條에

「熊津祠 在熊津南岸 新羅載四瀆 本朝爲南瀆載中祀 春秋降香祝致祭」

란 기록이 있는데 이를 熊川河에는 熊津祠를 세우고 春秋로 龍王祭를 지냈다는 기록이 된다. 그후 龍王祭는 郡 縣 部落單位로 번지게 되는데 靑陽邑誌의 경우를 보면 信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긴다.

「祈雨壇　一在牛山　一在七甲山　一在白月山　一在鵲川」

이 기록에 따르면 旱魃때에는 祈雨祭를 지내는데 牛山 七甲山 白月山에서는 山神에게 祈雨祭가 있었고 鵲川에서는 龍王神에게 龍王祭를 지냈다는 것을 알수가 있다. 그 외로도 藝川邊인 長谷洞 鵲川洞 共川洞을 비롯하여 錦江邊 注津 東江里附近에서도 龍王祭를 지냈다.

龍王祭는 음력으로 正月달에 河川邊에 祭物을 陳設하고 部落의 安康과 疾病에서부터의 保護를 기원하는데 물에 대한 神이므로 祈雨祭의 性格을 띠는 경우가 많다. 또한 漁業이 주로 성황하는 部落에서는 豊漁와 선박의 安全을 위해서 龍王祭를 지낸다.

第六節 神 壇 祭

여기에서 神壇이란 社稷壇 城隍壇 厲壇을 말한다. 옛날부터 縣에는 社稷壇 城隍壇 厲壇이 있었다. 그러므로 靑陽郡에는 한편을 제하고는 靑陽縣과 定山縣의 縣址가 있는 관계상 各 神壇터가 남아 있다.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1. 靑陽縣 社稷壇

位置：靑陽邑 長承里(松防里) 社稷洞(社稷洞 東山에 옛터가 있음)

2. 定山縣 社稷壇

位置：定山面 西亭里 古基（西便）

3. 靑陽縣 城隍壇

位置：靑陽邑 邑內里 牛山城內（遺址未詳）

4. 定山縣 城隍壇

位置：定山面 西亭里 北便（遺址가 있음）

5. 靑陽縣 勵壇

位置：靑陽邑 邑內里 牛山城（遺址未詳）

6. 定山縣 勵壇

位置：定山面 西平里 北便（遺址 있음）

① 社 稷 壇

社稷祭는 土神과 穀神을 祭祀하는 社稷壇에서 每年 春秋로 二回의 祭享을 가졌었다. 靑陽縣의 社稷壇은 靑陽邑 長承里 社稷洞 동쪽으로 丘陵위에 있었으며 定山縣의 社稷壇은 定山面 西亭里 西쪽에 있었다. 社稷祭를 지내는 經費는 그 고을의 郡 縣費로 充當하고 郡守 縣監이 나와서 제사를 지냈었다. 韓日合併後 廢止되어 祠堂은 헐리고 遺址만 전해 온다. 社稷祭를 지낼때의 祝文은 다음과 같다.

行祭祝文

維歲次・某年某月・干支朔・某日干支・某官姓于・敢昭告于

社稷之神·伏以厚德載物·粒我烝民·永言佑之·庶歆精禋·謹以牲幣醴齊粱盛庶品·式陳明薦

尙 饗

② 城 徨 壇

靑陽郡에 城徨壇은 두개소가 있었는데 하나는 靑陽邑 邑內里 牛山에 있었으며 하나는 定山面 西亭里 북쪽 大朴谷山에 있었다. 靑陽邑誌에 따르면

「城徨壇 在勵壇上 春淸明節局冬十月朔設行 云云」

한 기록을 볼수가 있다. 城徨壇에서 城徨神을 제사하는데 仲春 淸明節과 孟冬 十月 상달에 祭享이 있었다. 城徨祭를 지낼때의 祝文은 다음과 같다.

行祭祝文

維歲次 某年某月干支 朔某日干支 某官姓名 致祭于無祀鬼神 人之死生 萬有不齊 從古迄今 不得良死者 其類不一 或在戰陣而死國 或鬪毆而亡軀 或以水火盜賊 或罹飢寒疾疫 或爲墻屋之壞壓·或遇虫獸之螫噬 或凍餒而死 或陷刑辟而非罪 或因財物逼死 或綠妻妾而隕命 或危急而自縊 或沒而無后 產難以死 或雲死或墜死. 若此之類 不知其幾 孤魂無托 祭祀不及 隱鬼未散 結而爲妖 是用告于 城隍·召集郡靈 侑以淸酌庶羞 惟爾衆神·來享歆食·無爲厲災·以干和氣

③ 厲 壇 祭

厲壇祭는 厲神 즉 城隍之神과 無祀鬼神을 제사하는 것을 말한다. 靑陽縣의 厲壇은 靑陽邑 邑內內 午山城에 있었고 定山縣의 厲壇은

定山面 西亭里 大朴谷山에 있었다. 厲壇祭에서는 祭享으로서 疾病을 막아 民心이 좋아지기를 기원하는 제사다. 厲壇祭의 行祭祝文은 다음과 같다.

行祭祝文

維歲次 某年某月干支朔某日干支 某官姓名 敢昭告于城徨之神 以某月某日 設壇城北 祭闔境無祀鬼神 庶資神力 召集赴壇 謹以淸酌庶羞 式陳明薦

尙 饗

第三編　青陽의 飮食

靑陽郡 一圓의 飮食은 원래가 山間飮食으로서 선비들에게 口味를 돋구는 飮食으로 알려 졌었다. 요즈음은 科學的 分析으로 多量을 人體에 흡수하면 몸에 해롭다는 고사리도 七甲山의 고사리하면 전국에서 過去엔 으뜸으로 치던 산채나물이며 七甲山의 참나무버섯 및 버섯과에 속하는 버섯종류도 口味를 돋구는 飮食으로 알려졌었다. 靑陽一帶의 飮食은 대개가 소박한 地域의 産物로서 土俗的인 내음을 으뜸으로 꼽는것이 많았다. 例들어 定山面 南泉里의 土酒나 飛鳳面 養土里 그리고 斜陽面 金川里 靑南面 汪津里의 土酒는 그 술맛이 길가는 나그네의 발길을 멈추게 한다는 詩文의 글귀에 자주 등장하여 有名한 술로 꼽혔으며 雲谷面 位置里의 두부나 木面 安心里의 도토리묵, 상수리묵도 鄕土飮食으로 널리 알려졌던 음식이다. 赤谷面 美堂市場은 靑南, 赤谷, 定山, 木面의 農産物 集散地로서 市場의 規模가 대단하였다. 이에 따라서 土産物 飮食物의 集散地로서 共川에서 잡아 올리는 참게(蟹)의 특이한 맛도 손꼽히는 飮食物의 一種類다.

東國與地勝覽을 보면 靑陽縣條에 토산물로서 참게(蟹)를 定山縣條엔 벌꿀이 들어있다. 定山의 벌꿀은 土種꿀로서 漢藥房에서 으뜸으로 꼽는 土種꿀이였다. 또한 魚物로는 누치(訥魚), 쏘가리(鈴鱗魚), 참게(蟹)도 오르는데 근자에 와서는 共川一帶가 肝디스토마와 肺디스토마에 해로운 樣相을 띄게됨으로 차츰 그 人氣가 줄어 들었다. 靑陽의 물고기는 첫째가 민물고기지만 흙내가 나지않는다는것이 특색이다. 七甲山의 깊은 溪谷에 들어가서 山遊하는 사람들이 珍味로 물고기를 찾는다는것은 여기에 연유가 있다 하겠다. 七甲山의 산채나물에 물고기를 끓여놓고 버섯을 볶아놓고 술한잔 하는 맛은 天下가 내것같다는 詩句節도 있다.

숲이 우거져서 어둠침침한 七甲山에서 나오는 모든 飮食物은 그래서

일명 약채라고도 불렀다. 그중에서도 더욱 유명한 靑陽 고을의 特異한 飮食物을 기록해 본다.

1. 博文酒

博文酒는 靑陽에서만이 마실수 있는 특별한 술로 靑陽邑 東北쪽에 자리한 龍岩에서 나오는 물로 빚은 술을 말한다.

博文酒는 고운 찹쌀을 쪄서 말린 다음 누룩과 함께 빚어서 거기에 용암의 샘물로 담근 다음 몇일 지난후 술이 되면 술국을 짜서 다시 술을 담근다. 세번을 이와같은 방법으로 되풀이 했다가 다시 술독에 넣어서 100일이 지난 뒤에 마시는 술이다.

지금은 博文酒를 담그는 方法만 전해 오지만 朝鮮시대 末葉까지도 靑陽의 銘酒로 널리 알려졌던 술이라 한다.

2. 山菜나물

靑陽의 飮食 序頭에서 밝힌대로 七甲山은 山菜나물이 무진장 쌓아진 산이다. 七甲山의 山菜는 靑陽邑內에서 山菜白飯하면 밥상에 여러 가지로 무쳐서 床에 오르는데 山菜나물로 靑陽에서 독특한 맛이 풍기는 나물을 例擧해 본다.

① 참취나물

참취풀은 植物學的 見地에서 본다면 엉거시科에 속하는 多年草로 그 풀잎이 食龍類인데 香蔬라고도 부른다.

七甲山을 비롯한 근접한 山에서 많이 나오는데 대개의 경우 숲이 우거진 숲속에서 무성하게 자라는 풀이다. 참취풀은 삶아서 금시 요리해 먹을수도 있고 乾燥시켰다가 必要에 따라 쇠고기 양파등을 넣어서 들기름에 볶으며 된장을 섞어서 맛을 돋군 다음 먹는 산나물이다.

② 고사리나물

참고사리科에 속하는 多年生의 菜이다. 山에는 어느곳에나 자생하는 풀이나 太陽을 가리고 조금씩 햇빛이 숨어드는 즉 우거진 숲속에서 자란 고사리를 食用으로는 으뜸으로 꼽는다. 七甲山의 고사리는 대개의 경우 우거진 숲속에서 자란 고사리임으로 전국에서도 널리 소개된 고사리다.

고사리는 생생한 대로 먹기도 하지만 乾燥시켰다가 뒤에 식용을 하는 경우가 많다.

③ 도라지나물

植物學的으로는 초롱꽃과에 속하는 식물이다. 도라지는 多年草로서 그 뿌리를 食用으로 하는데 藥材로도 使用한다.

七甲山의 도라지는 다른 산골의 도라지보다 약간 쓴맛이 돈는것이 食道樂家들의 애용식물이 되는데 普通 栽培하는 도라지보다 검으며 또한 재배하는 도라지보다 연한것이 특색이다. 뿌리를 캐어 껍질을 벗기고 잘게 펴서 양념에 묻혀 먹는 산채의 일종류다.

④ 더 덕

植物學的으로는 초롱꽃과에 속하는 多年生 草이다. 漢醫學的 藥材로서는 沙蔘이라고 하여 상당히 藥材로서도 比重이 무겁다. 어느면에서는 人蔘보다도 그 効用이 있다는 뿌리인데 飮食用으로도 愛用을 받는다. 七甲山은 더덕은 원래가 산골짜기 습한곳에 野生하는 것이므로 더덕이 많이 생산된다. 옛날에 어려운 病에 걸리면 七甲山에 가서 더덕을 三年間만 캐서 구어 먹으라는 말이 漢醫生들의 상식적인 진단법이라 하였는데 그만치 七甲山의 더덕은 藥効가 있다는 것이다.

더덕을 뿌리를 캐서 겉껍질을 벗긴 다음 넙죽하게 쪼개어서

도마위에 놓고 칼자루등으로 두두려 부드럽게 편 다음 양념고추장을 발라서 숫불에 구어먹는 더덕구이와 생채로 회를 해서 먹는 방법 더덕 장아찌를 만들어 먹는 방법등 다각적으로 사람의 몸을 보호하는데에도 먹는 산채(山菜)이다.

⑤ 버 섯

七甲山의 버섯은 단연 싸리버섯이 제일이지만 그 외에도 밤버섯, 낭이버섯, 송이버섯, 느타리버섯, 외꽃버섯등 식용하는 버섯이 많이 자생한다. 옛날에는 가뭄이 한창일때 선비들이 한티고개에 산막을 짓고 버섯으로 연명하였다 하는데 생식하는 사람들간에는 으뜸으로 꼽는것이 七甲山의 버섯이다.

가정에서 버섯요리를 손쉽게 하는 방법으로는 버섯을 따다가 깨끗하게 한다음 버섯을 삶아서 고기를 다져 넣고 양념을 해서 볶아 무치는 버섯 나물과 고기와 당근, 외배추, 야채를 넣고 버섯탕을 만드는 방법등 많은 요리법이 있다.

⑥ 도토리묵, 상수리묵

도토리는 떡갈나무의 열매를 도토리라고 한다. 도토리는 긴편이며, 상수리는 둥근 열매다. 靑陽의 향토 음식으로써 전통을 자랑하는것이 도토리묵, 상수리묵이다.

도토리나 상수리묵은 양지쪽에 야생하는 떡갈나무의 열매를 따다가 말린 다음 매에 갈아서 분말을 만든다음 묵을 만든다.

⑦ 枸杞子

靑陽郡의 特産物인 枸杞子는 지금으로부터 約 60 餘年前인 1925 年 全羅南道 珍島로부터 移植 栽判하기 시작하여 現在 재배농가만 하더라도 1923 戶에 이르며 재배면적은 80 餘 ha 에 年間 140 PM／T를 生産하여 全國에서 枸杞子는 우리나라 固

有의 醫學인 漢醫學面에서 人間들이 그 藥效面에서 반드시 必要로 하는 여러가지 要素를 內包하고 있는 藥材인것이다. 漢醫書인 東醫寶鑑에 따르면 불면증, 기침, 당뇨병, 불감증, 신경통, 고혈압, 식은땀, 간질병, 위장병, 변비등에 特出한 藥效가 있으며 일체 副作用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라 한다. 또한 現代醫學的인 分析에 따르면 비타민 B가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 우리들 生命體에 가장 貴重한 榮養素인 단백질인 아미노酸도 함유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枸杞子를 藥材로 使用할 때는 枸杞子의 잎(葉), 열매, 뿌리(根)를 모두 버릴것 없이 사용하는데 그 利用法이 300가지 種類가 된다고 한다. 그중에서도 重要한것을 列擧해보면,

1. 枸杞子菜.
2. 枸杞葉菜
3. 枸杞子酒
4. 枸杞子葉汁
5. 枸杞子丸
6. 枸杞子식혜
7. 枸杞子죽
8. 地骨子酒
9. 枸杞子葉酒
10. 枸杞花酒
11. 枸杞子葉煙草

等을 꼽을수가 있다.

靑陽郡 一圓에서는 그동안 農家의 所得增大와 藥效에 必要한 藥材를 大量 生産한다는 긍지를 갖고 現在도 栽培農家가 時日이 흐를수록 增加하고 있는 現像이다.

第四編　青陽郡의　民俗놀이

우리나라의 民俗놀이는 百姓들이 처음에 遇發的으로 造成한　놀이가 차츰 百姓들의 呼應가운데 어떤 體系를 갖게 되었으며 百姓들이 歷史的인 흐름속에서도 오래도록 傳統을 이여 온 놀이를 말한다. 그러므로 民俗놀이는 鄕土色이 짙으며 또한 그 民俗놀이를 통해서 그 고장의 樣相도 추측할 수 있다고 民俗學者들은 말한다. 卽, 풀이해서 말한다면 그 고장의 民俗놀이엔 그 고장대로의 옛날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生活風習과 傳統文化 그리고 生活의 樣相도 알 수 있다는 結論이다.

우리나라에는 獨特한 民俗놀이가 많이 散在하지만 忠淸南道에 있어서는 特異하게 우리고장의 民俗性을 나타내는 놀이는 全無한 현상이다. 忠淸南道에서 好評속에 알려진 牙山줄다리기 鳳旗豊漁놀이도 우리고장만이 지닌 民俗놀이라고는 생각하기 힘들다. 記錄에 따르면 靑陽郡 一圓엔 다음과 같은 民俗놀이가 있었다. 卽, 七甲山을 中心으로한 山西地方엔 飛鳳面 養士里附近에 龍大旗놀이가 그리고 大峙面 開谷里에 流頭놀이가 있었으며 山東地方엔 靑南面 芝谷里에 횃불놀이 (패싸움이라고함)이가 그리고 大峙面, 定山面 일원에 洞和祭놀이가 있었다.

龍大旗놀이는 洪城郡 結城面 廣川邑 長谷面에 걸쳐서 農民들이 즐겨 놀이하던 두레에 근원을 둔 놀이로서 그 範圍가 또한 全國的이여서 여기에서는 除外하고 우선 靑陽郡에서 住民들이 즐겨 參與하는 民俗놀이에 대해서만 略記해 본다.

第一章　洞和祭놀이

開催地 : 斜陽面 溫岩里 돌보부락

洞和祭놀이는 斜陽面 溫岩里 돌보部落 뿐만이 아니라 斜陽面과 定山面 一圓에 걸쳐서 많이 試演하는 民俗놀이이다. 洞和祭는 部落祭의 일종으로서 部落의 蒐福과 그 해의 豊作을 비는 祭祀를 매년 음력으로 正月달 보름날 밤에 지내는데 祭祀를 지낼때에 장대에 짚을 감아서 높이 세우고 동화대라고 한다음 祭祀를 지내며 동화대에 불태우면서 농악을 치며 흥을 돋굴때부터 불에 타 나중에는 동화대가 드디어 짚이 타나가다가 쓰러지게 되느데 쓰러지는쪽의 마을이 불길하다 하여 고사를 지내기도 하며 즐기는 民俗的인 祭祀에 따른 民俗놀이를 洞和祭놀이라고 부른다.

洞和祭를 지낼때는 마을에서 도화주, 면화주, 시화주, 집사자등을 선출하고 동화대 앞에 제물을 진열하며 농악이 흥겨워 하는 민속놀이는 원시적인 색채가 보이기도 하는 민속놀이다.

第二章　횃불놀이

開催地 : 靑 南面 芝谷里

일명 패싸움놀이라고도 부르고 석전놀이라고도 부른다. 部落과 部落 사이에 패를 지어서 싸우는 놀이라 패싸움 또는 싸움놀이를 할때 돌을 던지기도 한다는 위험한 놀이임으로 석전이라고도 부른다. 밤에는 대마대(大麻一) 수수깡이대를 잘라서 새끼로 총총 돌려 맨때에 사금파리를 깨여서 그 사이에 뿌리고 꼭 동여매고 위쪽으로부터 불을 붙이고 상대방쪽으로 횃불을 내밀면 마치 요즈음의 불꽃놀이 일때에 불꽃이 튀여나오는데 이렇게 위협을 주며 땅뺏기를 하는 놀이다.

추수가 끝난 늦가을이나 겨울에 걸쳐서 마을과 마을이 대개의 경우 강변을 사이에 두고 놀이가 시작된다. 놀이의 승부가 하루저녁에 끝나지 않으면 다음날 또 다음날로 몇일간이고 계속되며 승자를 가리는 놀이이다. 횃불놀이를 할때는 마을과 마을의 젊은이들이 총동원되어 부락끼리 패가 되어 대접전을 한다.

백제 멸망후 백제 광복군들이 豆伊山城에 진을 쳤을때 사기를 고무하기 위해 처음 시작한것이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온다 한다.

第三章 流頭놀이

開催地 : 大峙面 開谷里

靑陽縣의 개곡리 사람들과 扶餘縣의 龍頭里 사람들과 징검다리가 인연이 되어 푸짐하게 놀던 민속놀이라고 한다. 한 여름철에 징검다리를 놓으면 큰 비가 와서 떠내려 가곤 할때에 그 징검다리를 놓기 위해서 놀이를 시작한것이 처음이라 한다. 큰 비가 와서 징검다리가 떠내려가도 다음해 유두날(流頭日)까지는 대개의 경우 방치해 두었다가 유두날 강변을 사이에 두고 양쪽 마을에서 풍장을 치고 나와서는 놀이가 시작되는데 처음에는 마을과 마을에서 장사가 나와 씨름판을 벌리다가 끝판에 가서는 마을 사람들이 총동원되어 그 부락의 농기뺏기로 들어간다고 한다. 농기를 빼앗긴 마을에서 징검다리를 놓게 되는데 유두(流頭)날 놀이를 함으로 유두놀이라고 한다.

七甲文化祭를 通해본 觀光開發

I. 序 論

鄕土文化祭의 趣旨와 目的이 옛 祖上들의 오랜 傳統과 그 遺産을 물려받아 繼承하는데 뜻이 있음은 두말 할 나위도 없다. 우리는 우리 民族대로 5000年의 긴 歷史를 간직해 오면서 그 흐름속에서 많은 受難도 격어 왔으나 우리 民族대로의 固有한 傳統은 참으로 빛나게 繼承하여 왔던것이다. 때로는 外難에 심한 苦痛을 받아 그 傳統이 와해되는 危機도 몇번 있었다. 그러나 우리의것을 가장 所重한줄 아는 百姓들은 祖上들이 남긴 遺産을 간직하는것만이 가장 所重한 使命으로 생각하였으므로 1000年이 지나고 2000年이 지나도 固有한 風俗서부터 精神的인 生活觀念부터 하나도 구김살없이 傳統을 繼承해 온것이다. 生活文化의 傳統은 外侵이 있을때 가장 변하기 쉽고 또한 外來思想의 導入이 빠를때는 변하기 쉬운것이다. 더구나 人間의 慾求가 生活面에서 安樂을 더욱 追求할수록 오염되기 쉽고 傳統文化는 쉽게 와해되는것이 外國의 實例였었다. 朝鮮時代 500年의 歷史가 허물어지는 1900年代初에 우리는 그런 危機를 겪어야 했었다. 勿論 政治的인 背景에서 그 密度가 지나치게 쇄국적인데 대한 進取的인 思潮를 꼭 받아들여야할 경우도 있었으나 祖上들은 용케도 必要한것은 높이 사면서 우리의 것으로 同化시키는데 成功하였으며 조금도 傳統意識을 흐트리지 않았다. 이것만은 우리가 祖上들을 높이 숭앙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라고 본다. 그러나 八.一五解放의 물결을 타고 日本帝國主義下에서의 植民地에서의 解放과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外來的인 風潮에 우리는 歷史以來 가장 危機를 당하여 고통속에 묻히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近代的인 科學思想의 進步에서 오는 先進國의 새로운 물결은 우리의 生活周邊에 革新을 가져올수 있는것이 없는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어떻게하면 우리의 固有한

傳統意識에 흡수해서 동화시키며 우리의 것으로 傳統을 계승하느냐 하는데 문제가 태동된 것이다. 白衣를 즐겨 입던 民衆들이 有色의 옷을 걸치는데에도 우리의 것으로 昇華시키는 遺產과 傳統의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分析할줄 알아야 하며 世界 한가족運動이 번지는 現實社會에 있어서도 民族性의 鬪持는 가장 소중한 遺產이라는것을 견지하여야 하는 것이다. 뿌리없는 나무는 시들듯이 뿌리가 단단한 나무는 永遠하다는것을 조금도 잊을때가 아닌 現實이 오늘의 現實이다.

七甲山文化는 靑陽文化의 源泉임은 누누히 設明해 갔다. 七甲山文化는 처음 東邊文化와 西邊文化로 처음 文化가 이식되었으나 同化하는데 年輪이 必要없었으며 그 肉重한 七甲山의 준령은 靑陽文化를 發展시키는데 큰 比重을 차지하였던 것이다. 오늘날 靑陽郡民들이 七甲文化祭란 祭典을 통해서 傳統文化의 遺產을 繼承하고 堅持하기 위해 횃불을 들었다는것은 意義있는 일이 될것이다. 그러나 七甲文化祭를 發展시키면서 우리는 어떠한 方法으로 遺產을 堅持하고 現代的인 側面에서 우리의 것으로 昇華시키느냐 하는데에는 많은 問題點이 따른다.

첫째로, 七甲文化祭의 性格은 完備된다 하더라도 七甲文化를 계승하기 위한 文化的 遺產의 整理는 어떠한 方法으로 整理하고 保存하느냐 하는 方法論도 問題가 되는것이다. 傳統이 이어주는 나무뿌리 하나라도 保存할것은 保存하고 매몰시킬것은 매몰시켜야할 視點이 必要하게 된것이다. 그럼으로 世界 어느나라나 傳統을 계승하는데 꼭 必要한 것으로 要求되고 있는 觀光開發에 우리들도 視線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우리의 것을 保存하자. 七甲文化祭를 빛내자 하는 祝祭 분위기보다 長期的인 안목에서 七甲文化祭를 통해 七甲文化를 保存하고 堅持하기 위해서는 꼭 觀光開發을 서둘러야겠다. 그래야만이 七甲文化祭는 長期的으로 빛나는 歷史를 간직하게 될것이다.

Ⅱ. 七甲山周邊地域別 觀光開發計劃

七甲山附近 觀光開發은 七甲山을 重心으로한 觀光開發計劃이다. 觀光開發이란 무엇보다도 觀光客의 誘致에 있으므로 平凡한 觀光施設로 觀光客을 誘致한다는 것은 平凡해서 觀光客誘致에 難點이 있으므로 七甲山附近의 觀光開發에 먼저 七甲山이 지닌 그 周邊의 特性에 着眼한 觀光開發이여야 한다. 七甲山의 名稱은 일곱개의 山峰을 七兜이라 해서 그중에서도 가장 높다 하여 처음엔 七兜山이라 부르다가 변하여 七甲山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한다. 일곱개의 山嶺은 主峰에서 이어지는 99腸의 陵線을 주축으로 한다. 七甲山의 운치가 99腸에 이어진 山嶺의 운치를 곱는다면서 99腸을 중심으로한 溪谷의 風景은 자연 따른 問題다. 그리고 七甲山을 脈으로 하고 散開되는 낮은 산과 들에 펼쳐지는 部落에서 이여지는 人類들의 曜動에서 七甲文化는 造成되었으므로 모두가 重要한 遺產인것이다. 新石器時代부터 脈이 이어진 이 文化의 구성에 七甲文化는 存在하며 이를 開發하는것만이 七甲文化를 빛낼 수 있는 觀光開發로서의 財產이 되는것이다.

먼저 槪觀的인 觀光開發보다 地域的으로 開發計劃을 세워 長期的으로 全體的인 施設이 觀光地로서 발돋움한다면 全國에서도 屈指의 觀光地가 될것이다. 우수한 觀光地로서 많은 觀光客이 몰려 들을 수 있는 資源은 豊富하다. 이를 開發하여 七甲文化를 자랑하여야 한다. 七甲文化祭의 원 뜻도 이에 準한다. 七甲山附近 觀光開發에 따른 資源을 邑面單位로 列記해 본다.

1. 靑陽邑

1) 古里島坪 先史時代遺跡地

馬韓時代 部落社會國家인 狗盧國이 있었던 자리로서의 遺跡地 保護 保存.

2) 馬韓때의 築城인

官婢山土城(靑陽邑 校月里와 碧泉里에 걸쳐있는 丘陵인 官

婢山 頂上의 土城)의 保存

3) 天馬山土城坦(靑陽邑 律糧里와 長承里)에 걸쳐있는 土城坦의 保護 保存

4) 燕峙山山城(靑陽邑 正座里 뒷편의 土城 燕峙山山城)의 保護 保存

5) 牛山城(靑陽邑 邑內里 栢川里에 걸쳐있는 山城)의 開發 保護

① 靑陽鄕校의 保存

ㄱ. 牛山城의 補修 復元

ㄴ. 厲壇터의 保存

ㄷ. 城徨壇의 保存

ㄹ. 靑陽石造三尊佛像閣運立과 保存 : 石造三尊佛像과 三層石塔은 1961年度에 牛城山中턱 충령사 바로밑에 옮겼었고, 1981年度에 國費 및 地方費 合3,000만원에 石造三尊佛像의 保護閣을 세워 保存되고 있다.

ㅁ. 龍巖寺附近觀光地造成

ㅂ. 碧泉里 積石塚의 保護

ㅅ. 邑內里 三層石塔의 保護

ㅇ. 社稷 (靑陽面 表承里 社稷洞)의 保護

6) 悟成庵(靑陽邑 赤縷里) 月峰庵(靑陽邑 校月里)의 觀光地 造成

7) 碧涵亭(靑陽邑 碧泉里 벽함정동)에 있었던 정자. 지금은 터만 남았지만 조선시대중엽 鳥城君 都正 李希良이 건립하였던 유명한 亭子다. 復元 保存

8) 登山亭址(靑陽邑 栢川里) 芝川邊에 있었음. 풍류적인 위치에 있는 亭子. 復元 保存

9) 李子松墓(靑陽邑 碧川里) 및 李瓘墓(靑陽邑 長承里) 李效元墓(靑陽邑 長承里)를 韓國式墓로 保存하여 李子松의 슬기로운 忠誠과 壬辰倭亂때 나라를 위해 功을 세운 李瓘과 李效元의 높

은 뜻을 宣揚

10) 靑陽邑에 散在되어 있는 碑를 일정한 場所에 모아 비석거리를 造成하고 歷史性의 誘示

11) 靑陽邑 牛山城에 新羅時代 七停의 한곳이였던(古郎夫里停) 歷史的 特殊性을 記念하는 碑閣의 建立

2. 大峙面

1) 七甲山의 山嶺을 中心으로한 大峙面一圓에 걸친 民衆的 自然發生的인 諸神堂의 補修 및 復元

ㄱ. 大峙面 長谷里의 七甲山 神堂

ㄴ. 大峙面 廣金里의 七甲 山神堂

ㄷ. 大峙面 柿田里의 山神靈堂

ㄹ. 大峙面 農所里의 山神靈堂

ㅁ. 大峙面 鵲川里의 七星神堂

2) 大峙面 大峙里의 長丞壇을 整理하여 庶民들의 信仰神을 整理하여 庶民들의 信仰神을 保存하는 觀光地 造成

3) 長谷寺一帶의 寺刹로서의 오랜 歷史와 文化財의 價値性을 保存하는 觀光團地造成

4) 芝川九曲의 흐름에 九曲의 表示를 하며 옛날 詩人들이 찬양하며 읊었던 글의 表示와 함께 溪谷의 特殊性을 살리는 觀光團地 造成

5) 七甲山에 자라는 고란초 蘭草(七甲)의 保存

6) 七甲山을 오르고 내리는 登山路의 整理

7) 七甲山 山麓에 觀光客이 休息할 수 있는 休息處 造成

8) 아니골(아흔아홉골)개발 : 削壁한 99個의 峻嶺이 한골을 向하여 뻗어 내려 이룩된 아니골. 많은 활엽수로 아름답게 우거진 숲속, 전혀 오염되지 않은 깊은 계곡, 차거웁고 맑은 물이 군데 군데 웅덩이를 형성하고 넘쳐 흐른다. 제멋대로 생긴 自然石은

金鋼山을 방불하리만치 천연스럽고 아름답기만 하다. 여름 피서지로 개발한다면 무릉도원이 무색하리라.

9) 韓得臣墓 保存:武科급제하여 벼슬이 訓鍊봉사로 仁祖 14 年 丙子胡亂에 兵卒을 이끌고 挺身力戰하다가 昌城에서 戰死하니 말(馬)이 그 頭部를 물고 왔으므로 大峙面 水石里에 得臣墓가 있고 그 옆 100 m쯤 떨어진 좋은 자리에 말무덤을 설치하고 공적비까지 세워졌으며 每年 得臣後孫들이 先祖祭祀時 祭祀를 지내주고 있다. 고증이 필요하며 保存.

3. 斜陽面

1) 斜陽峙의 歷史性을 높이는 休息處 造成
2) 斜陽面 金井里 옛날 金井驛址의 保存
3) 斜陽面 大鳳里 明齊書院址의 保存. 可能하면 옛書院의 復元
4) 金井里 鄕賢祠의 聖域化
5) 雲藏庵 革藏寺의 寺刹에 따른 觀光團地 造成
6) 斜陽面 金井里 芝川邊의 一尺頭와 玉鶴亭의 觀光地 造成
7) 斜陽面의 民俗놀이 洞和祭마을의 觀光地 造成
8) 斜陽面 溫直里所在 朝鮮時代의 統制使 趙猷墓의 保存
9) 斜陽面 金井里 所在 儒學者 李章贇墓의 保存
10) 斜陽面 新旺里 所在 愛國志士 蔡光默墓의 保存
11) 斜陽面 九龍里 朝鮮時代 肅宗때의 孝子 權晛 權謁의 旌閭 保存

4. 化城面

1) 圓覺寺의 觀光團地造成
2) 줄묘의 聖域化
3) 崔良業神父의 遺跡地 保存
4) 化城面 梅山里 九峰山 神堂의 保存
5) 化城面 廣坪里 山神靈壇의 保存

6) 趙斗淳墓(化城面 龍堂里), 崔瀆墓(化城面 基德里), 林植墓(化城面 水汀里), 蔡彭胤墓(化城面 九在里)의 保存

7) 化城面 新亭里 所在 安國柱의 孝子 旌閭와 化城面 廣平里의 趙惟의 孝子門의 復元 및 保存

5. 飛鳳面

1) 文博寺의 觀光團地 造成

2) 飛鳳面 中墨里의 飛鳳山 神堂의 補修 및 復元

3) 飛鳳面 寬山里 白月山 山神堂의 復元 保存

4) 飛鳳面 新院里의 乾川驛址 保存

6. 雲谷面

1) 厚德洞 및 支石洞의 支石墓附近 觀光團地 造成

2) 雲谷面 位羅里 朴信龍 遺衣閣 保存

3) 雲谷面 茅谷里 加亭子院址 保存

4) 雲谷面 美良里 李朴旌閭 保存

5) 雲谷面 茅谷里 梁誌의 忠義旌閭 保存

6) 雲谷面 厚德里 聖住山神을 모신 山神堂의 保存

7) 雲谷面 茅谷里 山神堂의 保存

8) 雲谷面 新垈里 四谷寺中의 하나인 雲谷寺址 保存

7. 靑南面

1) 靑南面 芝谷里의 朝鮮時代 仁祖때의 功臣 黃一皓의 可覽亭의 터 保存 可及的 復元

2) 東江에 있는 達海亭의 정자터 保存 可及的 復元

3) 靑南面 東江里 孝子의 亭子로 알려진 百忍亭의 保存

4) 靑南面 泉內里 一沙亭의 保存

5) 靑南面 汪津里 夢賚亭子址의 保存. 可及的 復元

6) 靑南面 芝谷里 朝鮮時代 肅宗때의 孝子 尹聘三의 旌閭 保存

7）尹彬의 孝行旌閭 保存

8）靑南面 東江里 石峰山神을 모시는 山神壇 保存

9）錦江邊 觀光地 造成

8. 赤谷面

1）長壽坪 先史時代 遺跡地 觀光團地 造成

2） 道林寺 三層石塔 保存

3）美堂里 彌勒院址 保存

4）長壽坪 長壽院址 保存

5）定慧寺 觀光地 造成

6）赤谷面 花山里 九龍沼附近 觀光地 造成

7）赤谷面 分香里 望月山神을 모신 山神堂 保存

8）赤谷面 樂只里 大沙川洞 七甲山神을 모신 山神堂 保存

9）赤谷面 美堂里 美堂 長丞이 서있는 附近의 保護

10）赤谷面 赤谷里 道林寺址의 保存

9. 木 面

1）慕德祠 聖域化에 따른 觀光團地 造成

2）木面 大平里 支石墓의 保護

3）木面 池谷里 支石墓의 保護

4）木面 池谷里 李湛의 旌閭 田龍聖의 旌閭의 保存

5）朝鮮時代 丙子胡亂때 殉節한 忠臣 李悌吉墓의 保存

6）木面 池谷里 一帶의 碑碣의 合同立地 造成

7） 木面 池谷里 千杜門洞 立石의 保存

10. 定山面

1）西亭里 九層石塔의 保存

2）南泉里 三層石塔의 保護

3）定山鄕校의 保護

4) 定山面에 있었던 定山縣의 東軒(定山面事務所자리) 客舍터(定山中學校자리)의 保存

5) 定山連池의 保存

6) 定山面 白谷里에서 木面 池谷里에 걸쳐있는 豆陵尹城의 保存

7) 定山面 西亭里에 있는 厲壇 社稷壇 城徨壇의 保存

8) 定山面 白谷里에 있는 錦山 七百義士의 한분인 任廷式 忠義旌閭의 聖域化

9) 定山邑內에 자리한 烈女 玉杯의 旌閭 保存

10) 定山面 大朴谷里 鄭範朝墓의 保存

11) 定山面 光生里 韓配夏墓의 保存

12) 定山面 天庄里 義兵義擧地의 保存

13) 定山面 驛村里 역말지의 保護

14) 定山面 新德里 德洞 修德院址의 保護

15) 定山面 鷄鳳山의 鷄鳳寺의 保存

16) 定山面 西亭里 梧桐寺의 保護

17) 定山面 南泉里 南泉寺址의 保存

18) 白連池 晩香亭의 保存

19) 定山面 大朴里 柿木洞 山神堂의 保存

20) 定山面 馬峙里 舍人峰 山神을 모신 神壇의 保存

21) 定山面 天庄里 七甲山神을 모신 上, 下 神壇의 保存

22) 定山面 海南里 長丞의 保存

23) 定山面 松鶴里 松鶴洞 長丞의 保存

24) 定山面 天庄里 天庄洞 長丞의 保存

25) 定山面 龍頭里 龍頭洞 長丞의 保存

26) 定山面 海南里 毛好里 長丞의 保存

27) 定山面 大朴里 柿木洞 長丞의 保存

28) 乙未年 獨立鬪士 權興圭의 碑閣의 保存

以上은 靑陽郡內에 散在한 保存할 수 있는 歷史的인 遺蹟地 또는 遺物들이다. 靑陽郡은 古蹟保存을 주관으로하는 觀光團地造成에 絕對的으로 立地的 條件이 좋은 環境에 놓여 있다. 더구나 5里마다 한장소씩 古蹟을 보며 우리의 歷史를 음미할 수 있는곳은 靑陽郡이 단연 으뜸이다. 七甲文化祭의 重點的 役割은 鄕土文化의 歷史的 保存이라고 한다. 民衆이 숨쉬고 그들이 保存하며 年輪을 접으며 오늘에 이른 土着文化의 찬란한 빛은 七甲山周邊에서만이 發見할 수 있다. 七甲文化祭를 통해서 우리의 것을 保存하는 뜻깊은 觀光團地가 앞으로 七甲山附近에 이룩된다면 道立公園을 둘러싼 七甲山周邊은 全國에서 손꼽히는 觀光地로 登場할것이다.

발 행 인 : 韓　　相　　玉
편 집 인 : 韓　　相　　玉
인 쇄 처 : 大　　林　　社
발 행 처 : 社法團人 青陽文化院
주　　소 : 忠南 青陽郡 青陽邑
　　邑內里 1 区 202－5

〈非 賣 品〉